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97 1981년12월16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December 16,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DEC 17 1981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0 St. George Street
FLOOR
TORONTO, CANADA

13년역사에종지부

한인교회 폐쇄, 둘로 병립키로

노회측, 양파화해에 실패

13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토론토 한인교회(서번×칼란)가 마침내 문을닫았다. 지난 13일 마지막예배에 모인 3백여 교인들은 예상은 했었으나 이렇게 된것은 정말 슬프다며 동교회에서의 석별의정을 나눴다.

강인병 목사인도, 마지막 예배후 연합교회 노회측의 한인교회 분규조사위원장케네드 퍼든 목사는 한인교회의 폐쇄를 선언하고 두개의 새로운 교회가 생긴다고발표한후 신도들의 질문을 받았다.

교인들은"왜 우리가 갈려져야 하나?"하며 울분섞인 질문공세를 폈으나 퍼든 목사는"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앞으로 더욱 신앙이 깊은 두교회가 생길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인교회의 내분문제는 지난6월초부터 시작 7월에는 유재신 목사의 사임을 몰고왔다. (<한국일보-토론토>81년7월30일자)곧 소속교단인 노회측은 조사위원회(위원장 : 케네드·퍼든 목사)를 구성, 교회문제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9 일교회내부의 두세력은 도저히 합칠수 없다고 판단, 한인교회를 폐쇄하고 두개의새로운 교회를 창설하라고명령했다.

퍼든 목사가 밝힌 조사 경위는.

●6 월초 시작한 장로그룹과 집사그룹의 내분문제는 목사의 공석을 가져왔다.

●노회측이 교회내에서 새로운 목사를 추천하고, 임시목사를 보내려 했으나 아무도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맡겠다는 목사가 없었다.

●내분은 수습하여 두 그룹을 뭉치게 하려 했으나 두 그룹간의 연령차이, 교회내의 권력다툼, 문화적 수용태세등의 차이로 합칠 수 없어 두개의 새로운 교회를 창설한다.

앞으로 장로그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칼래지 연합교회(502 Bathurst.) 에 새 교회를 세우도록 내정되었으나 확정되지는 않았고, 이 그룹에 속하려는 교인들은 김동진 장로(247-6061)에게 연락, 새 교회 장소, 시간등을 알아보면 된다.

집사중을 중심으로 한 신도들은 호프연합교회(Main × Danforth)측으로 내정했으나 마찬가지로 이광민 집사에게(366-4200)연락, 새 교회의 장소, 시간등을 알아보면 된다.

퍼든 목사는 어느 그룹에도 끼기 싫은 신도들은 노회로 연락하면(463-5355 또는 967-0880)다른 교회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인교회 해체및 두 교회 창설의 산파역을 맡은 퍼든 목사는 "교회가 해체됐다는 것은 슬픈 일이나 앞으로 창설될 두 교회의 발전을 축하한다"면서 "두 완전히 두 교회가 창설된 후 신도수에 따라 공평히 분배하게 된다.

새 목사가 인준되려면 내년에라야 될 것같다고 퍼든 목사는 말했다.

교회는 앞으로 연합교단의 모범교회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인교회 소유의 모든 재산은 노회측이 동결, 새 목사가 지정되고,

◇마지막 예배에 모인신도들, 퍼든목사(원내)가 교회폐쇄, 두교회 신설을 발표했다.

고 존·맥키니스 유해귀향

한국전때 전사한 미상사

(서울 15일=연합) 한국전쟁(1950~53)에서싸우다 전사한 한 미군병사의 유해가 그가 죽은지 31년만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에 소재하는 친선단체인 "미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는 고 존·맥키니스 상사의 유해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존·맥키니스 상사는한국전쟁 초기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하나였던 "전의"전투에 참전했었다. 그는 당시 북한의 침공에 처음 조우하여 교전했던 미24단 21연대에 속했다.

맥키니스 상사의 유해는 지난10월 옛 격전지에서발견되었다.

지난10월31일 방범대원 표진환씨는 길옆에서 철모 비슷한 물체가 땅위로 약간 표출한 것을 발견, 땅을 파본 결과 전투모와 군번호표가 부착된 유골임을 확인했다.

표씨는 군번 34130719가 표시된 번호표를 서울에있는 미군당국에 보내 확인을 의뢰했다.

맥키니스 상사의 유해는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으로 우송, 미시시피주 코빙톤에 있는 가족 곁으로 돌아간다.

재봉사 위문공연

각계서 협조, 악단도 동행

본사는 단신 고용이민 와서 외로운 연말연시를 맞이할 근 300명의 위니펙 교포 여재봉사들과 300여명 위니펙 교민들을 출장위안 공연한다.

오는 27일(일) 하오 7시 위니펙 호텔에서 위니펙한인회 연말잔치와 겸친 행사로 실시되는 이번 공연에 무료봉사로 원정가는 출연진및 종목은 4인조 권순근악단의 연주를 비롯, 토론토한인YMCA합창단 호세환 총무의 씽어롱 지도, 가수 박소영·박수영 양등의 노래등이다.

본사가 처음 시도하는 이번 위안공연은 토론토 한인사회 각계의 후원, 또는 협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노래와 춤, 함께 노래부르기, 댄스, 복권추첨등의 다채로운 프로가 산업전선에서 힘차게 일하는 재봉사 아가씨들의 마음을 훈훈히 녹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많은 업체, 기관에서 보내준 푸짐한 경 품은 세모를 맞아 훈훈한 동포애를 전할 것이다.

후원 : 토론토한인회·위니펙한인회·미도파백화점·영리무역.

협찬 : 토론토총영사관·토론토무역관·에코시가구점·신의상사·한인연합상사·신세계여행사·동우회·KAL·코리아타운번영회·킹스카메라·서울여행사·한국관·수퍼액스약국(조남호)·고순복(토론토한인회 부회장)·한인신용조합·한인라이온스클럽(정수순)

폴랜드 노조 군집권 예견

노조원 행동강력 사전지시

폴랜드 솔리대리티 자유노조는 군사정권의 가능성을 미리 예견, 금년 초 이에 대비한 노조원 행동강령을 작성했음이 밝혀졌다.

81년 3월24일 바르샤바 솔리대리티 지도자들에 의해 작성된 강령은 군사구테타 절멸, 합법적정부 몰락방지및 솔리대리티의 안전구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군사구테타의 경우 대비 노동자는 파업으로, 농부는 농산품을 감춤으로, 군인들은 명령을 불복종함으로써 군사정권과 맞서 싸울 것을 지시했다.

이 강령은 노동자들이점유하고 있는 공장을 요새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령은 또 공장은 24시간 노동자 자위대가 경비하며, 파업노동자들에게무력이 가해질 경우 소극적인 저항을 하라고 지시했다. 소극적인 저항의 실예로 당국이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태업등으로 생산량을 최저선으로 유지할것과 농업종사자는 당국의조사가 있기전 식량을 안전한 한 곳에 감추어 둘것을 지시했다.

한편 솔리대리티 지도자 렉·발렌싸가 사실상 구금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끈질기게 나돌고 있으나 군정당국은 시종 이를 부인했다.

이스라엘 골란고원을 영토화

새로운 중동전의 불씨, 미국도 비난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을 새로운 전쟁행위라 규정짓고 73년 중동전이후 맺은 이스라엘과 휴전협정을 깨뜨리겠다고 선언, 새로운 중동전의 불씨가 예상된다.

이스라엘은 14일 67년 6일전쟁후 점령했던 시리아 영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공식 합병 한다고 선언했다.

베긴 수상이 이끄는 여당 이스라엘당은 야당의반대속에 63 : 21로 골란고원의 합병을 법제화 했다.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 이스라엘 영토법은 시리아군의 총구와 맞닿은 골란고원북쪽을 영토화 했다.

베긴 수상은 이법안 설명에서 이지역은 고대이스라엘의 영토였다고 주장했다.

시리아측은 즉각 UN 안보이사회 개최및 이스라엘 규탄을 요청했다.

새로운 중동전 발발을염려한 미국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이것은 캠프·데이빗협정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캐나다국방부 길르·라몽타유장관은 현재 이스라엘 국경을 지키는 UN군 소속 200여 캐나다군을 철수 시키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루트의 PLO대변인은 이행위는 미국의 묵시 아래 저질러졌다면서미국을 비난했다.

이집트정부도 성명을 발표 "이스라엘의 행위는 국제법은 물론 78년 캠프·데이빗협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이스라엘을 비난했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社 告

= 은세계에의 초대 =

초보자를 위한 스키 강습회

호수의나라, 백설의 왕국 캐나다의 겨울은스키와 낭만의 계절입니다. 이에 여러분을 설인(雪人)의 양지로 초대하오니 많은 참가를바랍니다.
때 : 82년1월28일(목)~30일(토)2박3일
곳 : 퀘벡주에서 가장 큰 명산 MT.세냉
회비 : $160(1인당)※개인별로가면 $280소요
※대절버스(그레이 하운드)
—콘도미니움에서 숙식
—2일간 케이블카 무료제공
—2일간 스키 무료교습
—하루저녁은 대절버스로 퀘벡시내 관광
정 원 : 신청(선착순)35명
신청처 : 한국일보사 광고부(533-2361, 2)
브랜든 스포츠사(이건영 598-3732)
주최 : 한국일보-토론토
Brandon스포츠사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동우연말파티

동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물어 가는 이해의 마지막 우리들의 동우연말잔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아오니 우리 모두 참석하여 즐거운 회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26일(토)오후7시~새벽1시
장 소 : SKYLINE TORONTO HOTEL (BALL ROOM A "2층")
665 DIXON RD(AT HWY 27)
식 사 : 부페
밴 드 : 권순근악단일원
입장권 : 이사, 임원들이 배포중임
연락처 : 222-5370(총무 김남용)
270-1531(기획조사 정기영)
759-8349(섭외 김진현)
439-7093(체육 신우원)
746-4220(문화 조국현)
※경품은 한국왕복항공권(부부), 플로리다 왕복항공권 TV.등 다수선물을 마련하였음.
토론토동우회 이사, 임원일동 드림

성 축 탄

한국에 있는 불우한 맹인들을 돕기위해 창립된 본 온타리오 한국 맹인후원회를 위해서 지난 1년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샛별한글학교 교장 문관식
제일장로교회 여전도회
고종욱 신부
제일장로교회 목사 김용출
벧엘교회 목사 최상봉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 목사 유환진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목사 박희민

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
회원일동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5514

<미국기행>

EL CAPITAN

장 연 탁

◇장연탁 씨

◀소개말 : 이 글은 지난가을 "미술3총사"가 미국종횡 취재순방길에서 견문한 소감을 일행중 조각가인 본보필자 장연탁씨가 썼고, 동행화가 구자승씨가 그림을 제공해준 것이다. (<한국일보－토론토>81년 11월7일자, 11월24일자 참조)

미국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인지도 모른다. 뉴욕의 마천루로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힘, 나아가서 현대과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뿐이랴, 그 넓고 큰, 땅, 그것도 전세계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땅이고 보면 가히 상상해볼만한나라이다.

지난 34일간 거리로는 11,500여 마일을 자동차로 달려 미국을 둘러보았다. 화가 구자승씨, 신동헌 씨가 함께 동행한 이번 여행은 실제로 스케치여행을목표로 했지만 작품에선 별로 신통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제한된 시간과 날씨, 그리고 대자연이 주는 시각적 감각이 너무 진할 때오는 거부반응이라 할까, 작품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을 갖게 된 점도 있다.

이제 돌아와 미국을 다시 생각해본다. 그러나 막상 미국에 관한 이렇다할 만한 이야기가 없음을 생각할 때 어처구니없는 느낌마저 든다. 이는 미국이란 크나큰 공간이 주는 압도감때문에 나의 작은 사고의 영역을 증발시켜 버렸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에 산위에 걸린 구름을 잡아보려던 생각이 난다. 그런 망상에서 오는 낭패감처럼 내가 미국을 알기에는 그만큼 먼 곳에 있었다고나 할까.

네바다의 사막길을 아리따운 젊은 여성이 모는 대형튜레일러가 질풍처럼 달리고 있다. 얼핏 스쳐간 그녀의 당당한 표정에서 미국을 읽어내기란 나로선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뉴욕의 번화가에서 "합동운수"라고 쓴 큼직한 한글문자판을 단 한국인의트럭을 보는 순간 나는 반가와 했다. 그러나 이 괴상한 미국이란 사회구조를 생각할 때, 그 이름에 역시 쉽게 납득이 안가는 그런 어려움을 발견하게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는 아주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보면 내가 미국을 알고 말할수 있기엔 요원하다 보겠다.

작년 10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잠시 들른 적이 있다. 나를 초청한 여류조각가 에리자베드는 째즈광이었는데, 마침 그곳에는 제리·멀리건이 이끄는 미국의 저명한 째즈음악단이 와있었다.

나는 별로 째즈음악을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억지로 그 공연장에 끌려간 셈이지만 처음으로 본격째즈음악을 감상한 기회를가졌었다. 음악당을 청중들로 꽉 메운 가운데 백발이 성성하나 홍안의 미소를머금은 멀리간이 불어내는 색스폰의 흐느끼는 음향에서 그리고 그가 이끄는 일단의 [illegible]들이 내뱉는 미국의 특유한 냄새가 그렇게 질을 수가 없었다. 끝내는 휘청대도록 큰 이 북구인들의 기립박수에 이어 몇 차례의 앵콜쇼로 겨우 그들을 달래보내는 광경을보고 나는 감탄했다.

이 토박이 미국서민음악이 유럽에서도 이만큼 토착화되었다는데서다. 놀라운 친구들이다.

내가 감히 미국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나는 단연 저 EL CAPITAN에서 찾고 싶다. 그리고 아쉬움 없이 더 이야기하라면 GRAND CANYON에서 끝맺고 싶다.

캘리포니아 요세미떼(Yosemite)국립공원내에 있는 EL CAPITAN은 물경 1,098m의 수직 절벽으로 치솟은 한 조각의 화강석이다. 해발 천여미터의 산도 높다 하거늘, 산위 골짜기로부터 솟아오른 바위 높이가 천미터가 넘는다고 생각할 때 이 가공할 한조각의 자연물에 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 엄청난 바위를 본 후로 내가 조각을 하고 있다는데 회의를 느끼고있다. 다행이랄까, 한가지 위안이 될 일을 발견한 것은 그 바위를 오르는 산악인들이 있다는데서다.

인생의 욕망을 하필이면 저 아슬한 절벽을 오르는데 수단이 되는 한가닥의 밧줄에 걸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코웃음칠 게다. 지금도 그들은 "산이 거기에 있어 오른다"고 말한 에베레스트의 최초의정복자 에드먼드·힐레리의말을 성경귀절처럼 믿고 있을 터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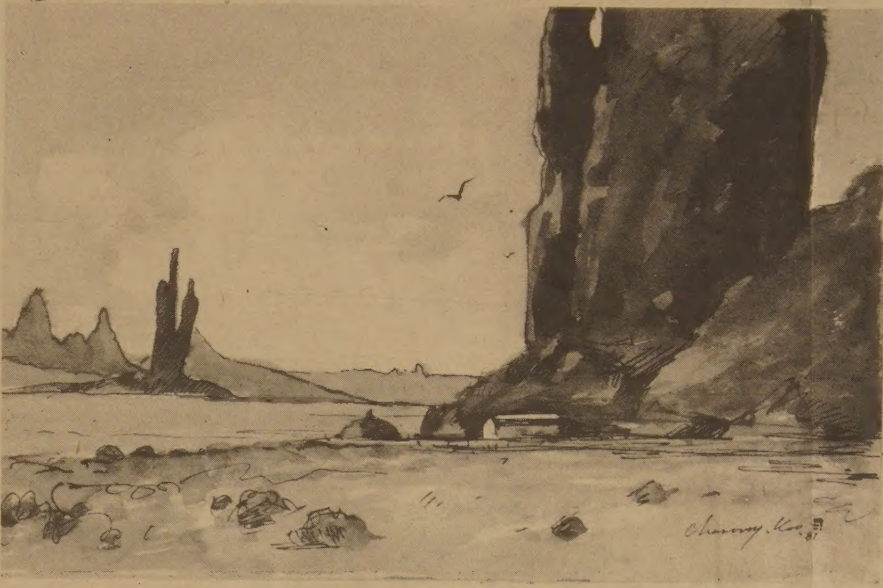
그러나 아무래도 좋다. 단지 왜 그들이 그 귀중한 생명을 걸고 그 바위절벽을 올라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해준다면··.

미국은 아직도 젊다. 그리고 용기와 끈기가 거기에 있다.

오늘의 미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거대한 자연을 통하여 그들이 배우고 키웠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EL CAPITAN과 GRAND CANYON이 나에게준 교훈은 저 코로라도의 달만큼이나 밝고 푸르다. 그러기에 광대가 될망정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이 미국이 주는 매력에 백문불여일견 이라 답하고 싶다.

(토론토 거주 조각가)



"NAVAJO NATIONAL MONUMENT"에서 그림 : 구 자 승

캐나다 헌법안 개요 ③

<평등권>

15. 만인은 법앞에서 평등하며 동등한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편견 없는—

특히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육체적 건강여부에 관계 없는 평등한 법적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공용어>

16. 1) 캐나다의 공용어는 영어와 불어이며, 두 언어는 캐나다의 의회나 정부기관에서의 공용어로서 공히 사용된다.

(2) 영어와 불어는 뉴·브룬스윅의 공용어이며, 뉴·브룬스윅 의회나 정부기관에서 공평하게 사용된다.

(3) 이 공용어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어떠한 의회나 법적권한도 영·불어 사용에 관한 평등성을 침해할 수 없다.

17. 1) 누구든지 의회에서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 토론할 수 있다.

(2) 만민은 뉴·브룬스윅의회에서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8. 1) 의회의 의사기록및 출판물은 영어와 불어 두 언어로 행해지며, 두 가지 다 똑같은 법적지위를 갖는다.

(2) 뉴·브룬스윅주도 1)항에 준한다.

19. 1) 어떠한 법정에서도 시민은 법적절차를 영어나 불어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2) 뉴·브룬스윅주도 1)항에 준한다.

20. 1) 캐나다 국민은 누구나 의회나 정부의 최고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를 영어나 불어로서 받을 권리가 있다.

(2) 뉴·브룬스윅주도 1)항에 준한다.

21. 16조~20조에 명시한 공용어기준 캐나다헌법 어느 부문에서도 침해될 수 없으며, 누구나 지켜야 한다.

22. 16조~20조에 명시와 영어, 불어외에 어느 언어도 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23. 1) 캐나다 시민은

a) 누구나 그들의 제1언어가 소수그룹의 통용어 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

b) 영어 또는 불어사용자가 소수그룹에 속하는 주라도 자기가 제1언어로 초,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캐나다 시민의 자녀들은 어디서라도 같은 언어로(영어 또는 불어)초, 중등교육을 계속 받을 권리가 있다.

(3) 주, 1), (2)항에 명시된 교육언어 권리는 영어, 또는 불어가 소수그룹인 주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a), b) 소수그룹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도 그 주에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으로 시설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계속)**

<정 정>

제1회분 해설기사중

"4. ⅓ 의원의 반대가 없는 한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모든 의회는 매1 년마다 1번 이상의 회기를 갖는다"로 정정합니다.

리비아에 경제보복 검토

미국, 요인암살계획 증거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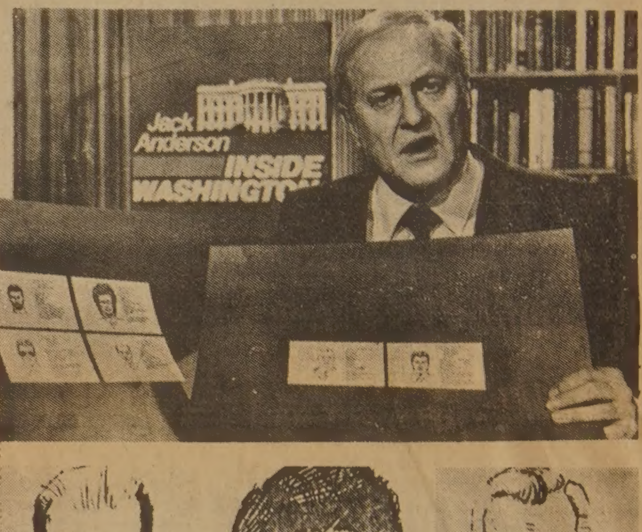
(시카고)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제3국을 통한 미국고위인사 암살계획을 포기하라고 8일 경고했다.

AP통신은 레건 정부 고위소식통의 말을 인용, 미국이 리비아의 암살계획 증거를 입수했으며 리비아에 대한 경제보복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레건 대통령은 2일간 계속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 미국의 우방국과 공동으로 리비아 석유수입을 중단하는 방법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성은 1981년도에 미국이 리비아로부터 70억달러 상당의 석유를 수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송장비,기계등의 대 리비아 수출액은 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리비아 암살단—영향력있는 컬럼니스트 잭 앤더슨(윗사진)은 10명 리비아 암살단의 몽타지를 ABC-TV굿모닝 쇼에서 공개했다.

크리스마스 쇼핑방법

=바가지요금에 조심=

크리스마스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경제불황으로 예년처럼 흥청거리는 분위기는 없어도많은 사람들이 일년중 어느 동기보다 쇼핑을 많이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쓸려 즐거워지고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을위해 선물을 사기 에 바쁜 소비자들에게 크리스마스는「바가지의 시즌」이기도 하다.

적지않은 가게들이 크리스마스의 들뜬 분위기, 소비자들의 관대해 지려는심리를 악용, 물건가격 올터무니없이 올려받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온타리오 소비자및 투상관계장관 고든·워커는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같은 함정에 빠지지않고 즐거운크리스마스 쇼핑을 할수 있는가?

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것은 물건을 사기전에, 여러가게를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이라고워커장관은 말한다.

그는 몇년전 그의아내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은쟁반을 산적이있다 그때 처음 들른 보석상에서 그 쟁반은 $52이다. 그러나 길 건너편 보석상에서는 똑같은 물건이 7~8달러 쌌다.

●크레딧·카드(Credit Card) : 크레딧·카드는 크리스마스 쇼핑을 아주 편하게 해준다. 그러나 기간내에 청구서 지불을 못할 경우 고리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150상당의 시계를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서 구입하고, 12개월 월부로 청구서 지불을 하면 결과적으로 $166.80를 지불하게 된다. $350짜리 세탁기는 $389.28가 된다.

결론적으로 지급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수가 많아진다.

●"염가판매"(Sales) : 어떤 가게에서 실시하는 염가판매는 다른 가게의 정가보다 가격이 더 높다.

●엄격한 상환및 교환정책 : 어느 회사는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을 아무 조건없이 상환및 교환해 주나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미리 물건을 사기 전에 체크할 것.

●가짜 자선단체 : 이들은 합법적 자선단체처럼 가장하여 터무니 없이 고가로 물건을 판다.

●대부이자 술책 : 어느 회사는 무이자, 혹은 저렴한 이자로 물건을 판다고 선전하나 이같은 크리스마스 할인은 만약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물건값을 완액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사치품이 된다.

문덕래 개인1위, 단체1위

제1회 코리안·볼링선수권대회

지난 주말 12일 프레이타임스볼링장에서는 본사가 후원한 제1회 코리안볼링선수권대회가 100여명의 볼러들의 참가로 성황을 이루었다.

개인전 종합에서 563 점으로 1위를 차지한 문덕래씨는 핸디부문에서도 66점으로 김동천 선수와 공동 1위를 수상했고, 김종덕, 전기덕 선수와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도 향토팀이1천530점으로 1위를 차지하는데 공헌, 상을 휩쓸었다.

이날 대회는 3개부문으로 나뉘어 개인전, 부부전, 단체전 3종목으로 거행됐다.

15개팀이 참가한 부부전에서는 김동훈부부가 490 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회 시상식겸 송년파티는 오는 19일 알비온 커뮤니티센터에서 갖는다. (연락처 : 759-8228)

대회전적과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전 종합
1위 문덕래 (563)
2위 김성원 (561)
3위 김홍배 (540)

◇부부전
1위 김동훈부부)490)
2위 이종현부부 (470)
3위 전기덕부부 (465)

◇넷 트
1위 조경남(431)
2위 이인식 (492)
3위 정용필 (492)

◇단체전
1위 향토(문덕래, 김종석, 전기덕,) −1,530점
2위 화랑(김홍배, 조규열, 최종래)−1,466점
3위 서울(이종현, 김풍길, 이상열)−1,434점

결혼축하

신랑 : 김수진군 (김성환씨 2남)
신부 : 이병애양 (이병호씨 누이)
주례 : 김용출 목사
때 : 12월19일(토) 정오
곳 : 제1한인장로교회 (963 Parmacy Ave)

교민동정

◆곽길우(신부, 보스톤 한인천주교회)=지난 10~12일(3일간) 샌·폴 성당에서 성탄준비 특별강론을 했다. 3일간 참가 연인원은 약 1천6백명.

◆허영식(한맘한글학교장)=한글학교·주일학교 통합후의 양쪽 교사 합동성탄잔치겸 연수회를 20일(일) 하오4시 한용식씨 댁에서 갖는다. 이 모임에서 아동문학가 이석현씨의「아동교육 이론과 실제」 강연이 있다.

◆김덕수(세종한글학교장—오샤와)=19일(토) 상오10 동교(265 Harmony Rd.N. Oshawa, Tel : 1−576−2021)에서 크리스마스·파티를 연다.

한국일보 533-2361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햄버거 샵
주매상 만3천달러. 몰개지 10만달러.
가격 : 38만5천
도넛 샵
•일요일 닫고 하루12시간 영업 운영간단
년수입 : 4만5천. 아스킹 11만 달러
•주매상 : 4천5백. 주매상 : 5천5백
주매상 : 6천5백. 주매상 : 7천달러 되는 도넛츠 스토아 여럿있음.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천2백달러. 주매상 : 5천달러(일요일 닫음)
주매상 : 5천5백달러. 주매상 : 6천달러.
주매상 7천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가옥
•주매상 4천달러. 코너건물. 2 베드룸
아스킹 12만8천달러
•주매상 6천달러. 코너건물 3 베드룸
아스킹 22만달러
쇼핑 몰
스모크, 기프트 샵. 새로 OPEN 됨. 아스킹 8만달러
기프트 크레프트, 하비 샵. 년매상 17만달러.
아스킹 8만달러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6(R) M3B 1Z3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 에 한함 —

		Special
Chocolate Bar (Reg)	36's All Flavour	$ 9.49
Glad Garbage Bag	10's	33.75
Canada Dry (Ginger Ale, Club Soda, Tonic Water)		5.49
Wilson Crush (Orange, Grape, Cream Soda Etc.)		5.29

◎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그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염가특별 대매출을 실시중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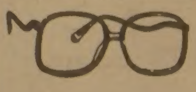
블루어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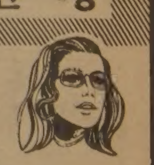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왕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예수수의는 진짜

미 신학자 필라스교수 주장

사자 눈감기는데 쓰인동전 수의에 선명하게 찍혀있어

미로은라대학의 신학자인 프란시스·L·필라스목사는 최근 토리노성당에 보관중인 예수의 수의에서 예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본디오·빌라도 총독시대에 발행된 희귀한 동전이 찍힌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이로 미루어 토리노성당의 수의는 예수의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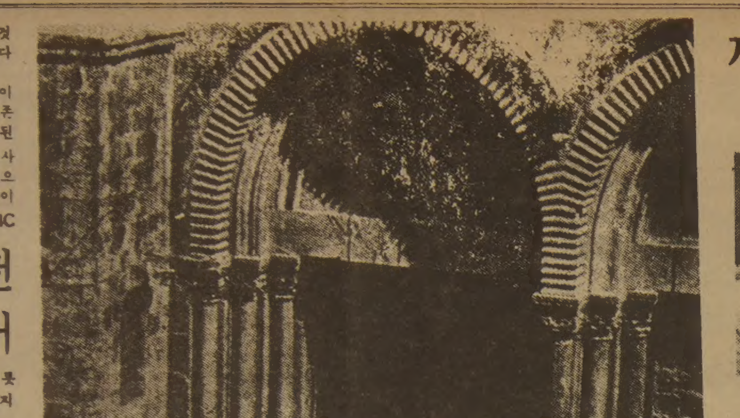
필라스 목사는 빌라도 총독시대에 발행된 철자가 틀린 희귀한 동전모양이 수의에 선명히 찍혀 있다고 말하고 당시 이동전은 AD70년까지 죽은 사람의 눈을 감기는데 널리 쓰여졌다고 밝혔다.

그는 수의에 철자가 틀린 동전모양이 찍혀있다는 것은 이수의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그장소 그시대의 것이라는 증거이며 현존하는 빌라도 총독시대의 철자가 잘못된 동전과 토리노성당수의의 못박혀 죽은 사람의 오른쪽 눈위에 찍힌 모양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리노성당의 수의가 예수의 것이라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증거는 그리스어의 티베리우스·시저(TIBERIUS CAESAR)라는 문자가 수의와 동전에서 동시에 나타나며 이는 디베리오우·카이저(TIBERIOU KAISAROS)의 K가 C로 잘못 표기됐다고 볼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미루어 동전에 잘못된 철자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해도 틀림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이 수의가 예수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수의는 1578년 이래 이탈리아의 토리노성당에 보존돼 왔으며 1898년에 제작된 사진감광조사결과 수의에 사람의 형체가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가들이 역사적 연구를 진행해도 14C 이상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 늘 진짜예수의 수의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필라스목사는 그러나 이번에 발견한 동전 모양이 지금까지의 어느것보다도 확실한 증거라고 밝히고 빌라도총독은 AD29년 이후에 그같은 동전을 발행했으며 최후의 것이라야 AD32년을 넘지 않는다면서 위조동전의 모양이 수의에 찍혔을 가능성은 전혀없다고 말했다.



주간女性

의붓 아버지

새 映画

낮기만한 초콜렛같은 미국영화에 식상하면 깨소금맛 나는 프랑스영화 「BEAU-PERE」를 보면서 키득 키득 웃어보자.

29세의 나이트클럽 피아니스트 레미(패트릭·드웨어)를 두고 8년간이나 동거해온 사진모델 마르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여자없인 못사는 레미에게 남겨진 것은 고독뿐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14살짜리 마르띤의 딸 마리옹(아리엘·베스).

마리옹은 자신의 첫남자는 레미여야 한다며 옷을 훌랑 벗고 저돌적으로 접근, 피하다 못한(?) 레미는 마리옹과 사랑에 빠진다. 제법 심각하니 이 사람은 얼마 못가고 레미는 또래의 피아니스트 샬롯(나딸리·베이)에 다시 매 없이 빠져들어가는데 이 둘의 사랑을 빠끔히 들여다 보는 계집아이가 샬롯의 5살난 딸. 이러다보면 영화는 스물네시간도 계속 반복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버린다.

투명할 정도로 해맑으며 속이 좀 빈듯한 얼굴의 패트릭, 이 의지박약아가 『내 몸의 모든 부분은 성장한 여인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달려드는 맹랑한 아리엘과 나누는 대화 곳곳에서 코믹한 냄새가 물씬 풍기며 영화는 전반적으로 코미디텃취.

프랑스영화를 보고나면 입장료 5달러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까닭은 그 내용이야 어쨌든 씹으면 씹을수록 향긋한 맛이 나서이다. 명우 모리스·로네도 나온다. 감독 베르트랑·블리에. 등급 R.

제5계절

명탐정 "호옴즈"

유형승

(메트로토론토도서관 서지조사부장)

◇유형승씨

셜록·호옴즈(Sherlock Holmes)는 스코트랜드의 에딘바라 출신 의사인 아더·코난·도일(Arther Conan Doyle)경의 1887년 「주홍빛 연구」라는 첫 작품에 등장한 이후 그의 대표작 「바스카빌가(家)의개」등에서 그의 친구 의사 왓슨(Dr. Watson)과 함께 쾌도난마 연역적(演繹的) 추리방법을 사용하여 어려운 범죄사건들을 해결하는 작품중의 인물이다.

프랑스소설중의 "일센·루팡", 한국 김내성 씨의 「진주탑」등에 등장하는 명탐정 "유불관"과 같은 소설중의 주인공에 불과한그가 지금은 그를 창작해낸 저자 코난·도일은 몰라도 「호옴즈」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회가 있고, 몇년전엔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한 일까지 있다.

물론 「호옴즈」는 사건해결을 위하여 구라파에 출장중이라, 애석하게도 학위수여식에 참석치 못하고 다른 분이 대신 참석 하게 되었다.

내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5층에 올라가면 "ArtherConan Doyle Collection"이라고 하는 특수열람실이마련되어 있다.

이 방은 그의 작품 중에 묘사된 "호옴즈"의 방을 본따서 가구와 장식등을 준비하였고, 한국어를 포함한 세계각국어로 번역된그의 작품들, 편지, 원고, 또는 관련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 방에 있는 장서와 자료는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로서는 세계최고라고 한다.

이곳에 들어설 때마다실제 살아있는 "호옴즈"의체취를 느끼는 듯, 대사건의 해결을 위해 잠깐 방을 비워두어, 사건의 해결과 함께 의기양양한 그가 친구 "왓슨"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설 것만 같다.

간혹 나를 찾아오는 고국의 손님들이나 친지들을 안내하여 이 방에 들어설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최소한 50년 앞날의 독자들을 의식하며 수집한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사회도 이런 자료실 하나는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한국에서 출판되는 소설이나 기타 교양자료들을 이미 이곳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여 관리하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 그러한 읽을거리들은공공 도서관에서 맡아 하도록 맡겨버리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려는우리 한인사회의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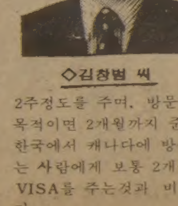
작업화, 운동화, 구두, 실내화, 하이힐등 무엇이라도 좋다. 우리가 남긴발자국들을 모두 가지런히정리해 놓으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민사(史), 인물사는 물론 우리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공헌하였는가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혹 우리 도서관을 찾을 기회가 있는 교포는 5층에 있는 명탐정 "호옴즈"를한 번 찾아보지 않으시겠는가?

<여행안내> ②

모국방문시 여권등 사전준비 필요

김 창 범(신세계여행사 대표)



◇김창범 씨

2. 모국방문

보통 이민온지 3년 이상 되고,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될 때부터 모국방문이 시작된다.

(가) 여행준비에 필요한것

첫째 여권이다. 한국에서 올 때 가지고 온 이민여권은 3~5년이 넘으면무효가 되므로 교포여권으로 갱신하거나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캐나다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교포여권은 소정양식 과 여권용 사진 3매 첨부, 내년 1월1일부터 거주지 한국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보통1주일이 소요된다.

만일 갑자기 떠나가야하는데 이민여권은 무효가 되고, 교포여권신청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교포여권을 신청해 놓고, 총영사관에서 발행해 주는 여행증명서로서 여행하는 비상수단도 있다.

캐나다여권은 인근 우체국에서 여권신청용지를 얻어다가 기입하고 여권용사진 2매를 준비하여 캐나다 시민권자의 보증서명을 받은 후 오타와의 외무부에 발송하거나 거주지 여권과에 제출하면 된다. 오타와에 보내면 약 3주~4주 걸리며, 거주지 여권과는 약 4일이면 된다. 16세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여권에 포함시키면 간편하다. 이때 별도 사진은 필요없고, 다만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이 필요할 뿐이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입국사증, 즉 VISA다. 캐나다여권일 경우 한국과캐나다 양정부간의 영사협정이 없기때문에 반드시 입국사증을 받아야 하는데, 관광이 목적일 때는 보통 2주정도를 주며, 방문등의 목적이면 2개월까지 준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방문오는 사람에게 보통 2개월의 VISA를 주는것과 비슷하다.

만일 한국내에서 이 Visa기간을 연장코자할 때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2중국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국적 말살신청을제출하면 2개월을 더 연장해 준다. 한국체류가 6개월이 넘으면 캐나다정부에서 재입국할 때 영주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나라 이민법에 의하면 1년의 반이상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있을 때는 이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취소할수도 있게 돼있으므로 만일 한국에 장기체류를 생각하는 분은 사전에 이민국에서 장기체류 허가를 얻어놓는 것이 좋다. 보통 1년까지 허가해 준다. 한국에 들어가서 집안사정 등으로 6개월이상이 경과될 때는 캐나다대사관을 찾아 가서 이유를 제시하고 장기체류 허가를 받아놓아야 재입국시 말썽이 없다.

한국으로 영구 귀환하는 사람은 일시귀국허가가 필요없다. 그 대신 영사관의 거주증명과 물품반입증명을 얻으면 이삿짐의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따라서 캐나다에 와서 구입하였거나 한국에서 가지고 나온 각종 이삿짐을 세금없이다시 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나) 항공편 선택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대한항공, CP Air, 일본항공, NWA, Pan Am등이 있다. NWA는 뉴욕 또는 시카고에서 출발하여 동경 경유 또는 직행으로 서울까지 들어가므로 대단히편리하나 요금의 차이등으로 캐나다에서는 인기가 없다.

Pan Am은 뉴욕출발, 동경까지 무착륙비행한다. 다것 역시 뉴욕공항에서의 연결이 불편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한항공, CP Air, 일본항공 인데, 이중 CP Air와 일본항공은 출발요일만 다를뿐 항로가 동일하므로 출발요일과 시간표만 소개하는데 그치고 여기서는 대한항공과 CP Air편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겠다.

(1) CPA

○출발편

(가) 일요일, 화요일

토론토 → 뱅쿠버 →
도착/출발 도착/출발
CP081 CP401
09:40 → 11:25/14:00→
동경 → 서 울
도착/출발 도착/출발
KAL001
16:55/18:40 20:40
(1일추가)

(나) 월, 수, 금요일

09:40 → 11:25/14:00 →
16:55/10:00 → 12:00
(JAL951
(동경숙박·2일추가)

이것은 월, 수, 금 출발의 경우 동경도착후 연결편이 없으므로 CP 부담으로 나리따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일박하는 스케줄인데 물론 비용은 항공사 부담이다.

일요일과 화요일 출발은 동경에서 곧장 당일로 서울에 들어가게 되어있으나 경우에 따라 항공기 고장이나 공항사정등으로 연착하는 경우에도 부득이 일박하게 되는데 이 때도 CPA직원이 나리따공항에서 미리 대기하였다가 호텔쿠폰을 수교해 준다.

어느 경우에나 짐에 대한 근심은 필요없다. 자동적으로 옮겨실어지므로 동경공항에서 짐을 찾아 호텔에 가지고 가는 불편은 없다. 다만 통과여객 으로서 일단 입국수속을 하고 나가게 되어있고, 이튿날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출국수속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때 공항세로서 약$10을 지불하게 된다.

나리따공항 근처의 호텔은 최신식이고 시설이 고급(First Class)이다. 공항에서 매 30분마다 호텔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

아침에 보통 7시경에는 기상해야 공항에 9시까지 나가게 되므로 잠자리에들기 전에 교환수에게 7시경에 깨워달라고 하면 편리하다.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캐나다 여권은 일본과 영사협정이 돼있으므로 3개월까지는 비자가 필요없다. 한국여권은 72시간까지 비자가 필요없다. 따라서 3일이 경과, 15일까지는 토론토에서 출발전에 일본영사관의 경유지 비자를 얻어야 한다.

○도착편(일, 월, 수, 목, 금)

서울 → 동경 →
출발 도착/출발
JAL952 CP402
13:30 →15:25/19:30
뱅쿠버 → 토론토
도착/출발 도 착
CP080
10:50/13:30→20:40

한국과 14시간의 시차가 있으므로 날짜의 차이없이 당일 도착하게 된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⑩⑥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텐트 주위에 놓는 이동그런 돌무더기축으로 걸어가서 보니 솥을 걸었던 자리가 있었고 까맣게 타다 남은 숯덩이를 자세히 살펴 보니까 아주최근에 불을 땐 것처럼 보여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순간적으로 이 캠프의주인이 금방 돌아올것처럼생각되었다. 나는 눈을들어 번쩍이는 호수물을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움직인 것은 없었고 순간적인 환상은 지워졌다.

그제서야 나는 바렌땅에서는 부패나 녹이 쓰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맑은 햇빛과 바람밖에없는 이 세계에서는 나무나 동물 뼈다귀는 이상하게도 전혀 상하지 않고 몇세기가 지나도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었다. 특히 한예로 나무가 자랄 수 있는수림지대에서 북쪽으로 3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작나무 껍질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이 자작나무 껍질은 어떤 인디안이 캐누를 수리하려고 했던것으로 내가 발견했을 때에는 적어도 3세대가 지난 후였을텐데도 전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이 땅에서 과거를 조사하려는 사람은이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텐트와 이글루에서 살던사람들이 남긴 것은 거의 없었지만 몇개의 유물은 기적적일 만큼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했다.

에니타의 캠프를 좀더자세히 관찰해보니 눈과 비바람, 그리고 허구한 세월속에서 땅바닥에 묻혀 온 인간의 해골이 새까맣고헝클어진 머리를 뒤집어쓴채로 발견되었다. 주위 에는 무덤같은 흔적이 없는것으로 보아 이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두 파묻고 자기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 땅위에서 묻히지 못하고 죽어간 것이다. 그때의 참상을 더 확실히 파악할 증거로 그 근처 텐트를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이 넘어진것이다. 가죽텐트는 이미 오래전에 쥐나 오소리가 와서 뜯어 먹었을 터이니까 없어졌지만 기둥은그대로 남아 있었다. 텐트기둥은 이곳에서 "은 막대기"라고 불리는데 사람이 모두 죽어서 아무도 쓸 사람이 없기전에는 절대로 내버리는 법이 없다.

이끼가 두텁게 낀 이 돌무더기 주위에는 동으로만든 고기바늘, 사향소 뿔로 만든 국자 그리고 한때 백인들의 실을 감아 두었던 나무로 된 실패들이 발견되었다. 특별히 실감개는 우리 시대의 물건이다. 아마도 이것은 키네투러산밑까지 그를 마중하러 나왔던 사람들에게 타이렐씨가 선물로 주었던 것일런지도 모른다. 내가 발견한 이모든 물건들이 비록 말은 못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그들의 목소리를 듣는것같은 느낌을 주었다토이들 물건들은 에니타의 캠프에 첫 백인이 오고난후에 죽음이 닥쳐왔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햇볕에 하얗게 바랜나무실패와 여러개의 도구는 누가 에니타의 캠프에 살고 있던 사람을 죽였는지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누이트가 바렌의 경계선에서 백인무역자들을 만나기 이전에 타이렐씨가 처음 다녀간 20여년후에 가꾸미가 백인들로부터 이땅에 옮겨온 "굉장한 고통"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에니타의 캠프를떠나서 호수연변을 끼고 서쪽을로 걸어가며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세워논 작은 이누콕의 대열을 지나갔다. 이미 죽어간 애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니 애처로워짐을 참을수가 없었다. 잠시후에 큰 낭떠어지가 뒤에있는물이얕은 만에와서 보니푸른 잡초가 무성한데 이큰 호수에서 처음보는 모래사장이 발견되었다. 그곳은 오아시스같이 따뜻하고 평안한 분위기였는데 잡초가무성한 사이로 엄청나게 많은 텐트를 세웠던 자리가 눈에 띄었다. 아마 30개의장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적어도 이들중 18개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이쓰고 있었던것 같았다. 에니타의 캠프장소처럼 이곳도 갑작스레 폐허가된것 같았다. 텐트둘레의 안팎에서 오호트 사람들이 쓰는 물건과 똑같은것을 주어모았다. 여자들이 꽂는 나무로된 장식이 있었고, 이 귀중한 장식품이 이끼속에파묻힌채로 남아있었다. 아직도 탄력이강한 활이 섬유질이 그대로 모형만은잃지않고 남아있었다. 또 주위에는 사슴뼈다귀와 털로 가득찬돌로만든 고기저장소가 있었다. 모래사장밑에 작은 바위돌로 울타리를넓게 처놓은 곳은 겨울 철에 잘먹지못한 개들이 사슴가죽을 씌운 카약을 뜯어먹지 못하게 한쪽으로 모와두었던 모양이다. 이울타리로 개들이 못오게 막았을지는 모르지만 오는세월을 막아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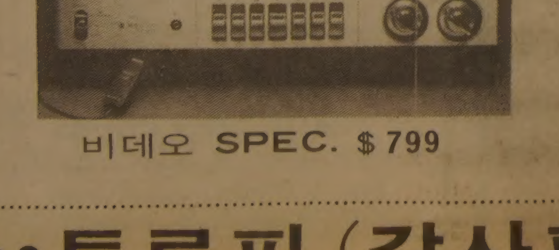
아무도 알수없는 이 비극의 자취를 둘러볼때 나는 으시시함을 느꼈고, 밝은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지는것 같았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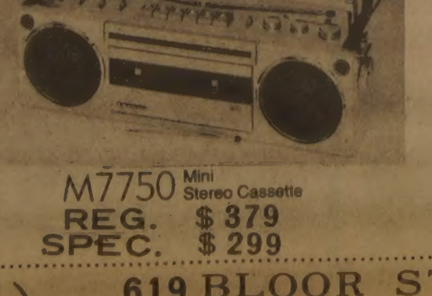
→ 광고 도안
→ 결혼·회갑 촬영
→ 한국 비데오 테프 판매.렌트 300종
善美 선미광고 B531·6430 R746·3712 국본무.

크리스마스 특별세일
SANYO
VIDEO CASSETTE RECORDERS
PORTABLE AM/FM STEREC

M9921 AM/FM Stereo Cassette
단파 SPEC. $199



비데오 SPEC. $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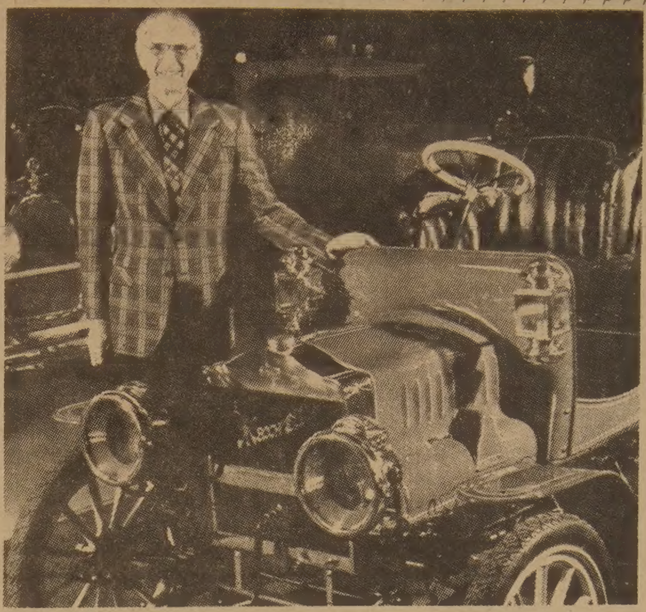


M7750 Mini Stereo Cassette
REG. $379
SPEC. $299

킴스카메라·트로피(감사패)
619 BLOOR ST.W. TORONTO
전화 : 534—1085 대표 : 김춘탁

영국의 상징「롤즈로이스」

야심가 세일즈맨 롤즈, 설계명수 로이스와 합작



세계의 명차 롤즈로이스는 보수주의적인 영국의 특성을 대표하는 고급차. 이차의 이름은 두설립자 찰즈·롤즈와 프레드릭·로이스의 두성을 합친것.

1877년 영국 런던의 어느 실업가 집에서 태어난 찰즈·롤즈는 1902년부터 자동차 판매업에도 손을 뻗쳐 당시 프랑스제 빠나르차를 영국에 가져다 팔았다.

그러나 영국도 프랑스 못지않게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프랑스제인 빠나르차를 능가할만한 인기있는 모국의 고급차가 없음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종종『내가 프랑스제의 자동차를 팔때마다 강한 불만이 내마음을 짓누른다. 왜 우리나라의 인기있는 고급차가 없을까』하고 영국차의 출현을 아쉬워했다.

드디어 1904년 독일의 벤츠나 프랑스의 빠나르보다 더좋은 자동차를 만들수 있는 영국인이 나타났다. 프레드릭·로이스라는 사람이 3대의 자동차를 영국의 공업도시 맨체스터시의 어느공장에서 방금 완성해놓고 있었다. 때마침 롤즈의 사업파트너인 헨리·에드먼드가 이를 목격, 마음에 꼭들어 두사람의 대면을 주선했다.

롤즈를 맨체스터에있는 로이스의 자동차공장으로 데려가 2기통엔진 3대중 한대를 선 뵈었다. 자존심이 상한 롤즈는 옆에서 슬쩍보고는 차가 작고 엔진이 약해서 마음에 안든다고 딱지를 놓았으나 에드먼드의 권유로 못이기는채 운전석으로 올라가 운전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스피드나 안락감, 엔진의 힘이 프랑스의 빠나르차보다 월등한것을 발견했다. 그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차와 사람이 바로 로이스 였다는 것을 깨닫고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어쨌든 당시 이두사람의 옹고집때문에 서로 속으로 좋아하면서 선뜻 손내밀

세계최고급…값도 최고

정성다한 예술품…"은유령," 별명 "벤츠"와 "빠나르"를 앞질러

기를 주저하는 사이를 에드먼드의 능수능란한 사교로 손잡게 만들었다. 그후 에드먼드를 가리켜 롤즈로이스의 대부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

이렇듯 판매의 명수 롤즈와 자동차 설계의 명수 로이스의 콤비가 1905년부터 맨체스터시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자동차가 후세에 그렇게도 고급차로 명성을 떨칠줄은 본인들도 미처 몰랐던것.

그는 지칠줄모르는 탐구심파 종횡무진한 활동을 폈다.

1910년 여름휴가때 미국 라이트형제가 발명제작한 엉성한 자가용비행기를 타고 날다가 고장으로 추락, 33세로 생을 마치고 말았다.

그는 또한 비행가로서도 이름을 날려 영국인으로서 공중사고희생자 제1호가 되었다.

한편 방앗간의 아들로 태어난 로이스는 어릴때부터 고생스럽게 자랐다. 들판에서 새를 좇는 허수아비 노릇부터 신문팔이, 그러다가 철도국의 견습생으로 전기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런던의 전기회사 전공으로 종사한지 몇년후 1급전기 기사가되어 맨체스터에서 독립해 전기제품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항상「최고이상은없다」라는 신념으로 가장 우수한 전기제품을 만들어 호황을 누렸다.

1903년봄 로이스는 프랑스로부터 데카빌이라는 자동차를 사들였는데 스타트가 힘들고 과열이 잘되며 엔진소리가 너무 서끄러웠다. 이차보다 더좋은 자동차를 만들 것을 결심, 공장의 일부시설과 숙련공을 독려해 거의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3대의 최초의 로이스차를 만들었다. 이차를 롤즈가 보았던것이다.

당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들었던 자동차는 대부분 힘이 약하고 엔진이 시끄럽고 스타트가 어려웠던것이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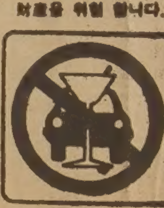
1904년 어느 금요일 로이스는 그의 첫자동차를 시험했다. 스타트가 부드러웠고 엔진소리도 조용했으며 쿠션도 좋았다 거기다 2기통인데도 배기량이 커서 힘도 좋았다. 이해 크리스머스부터 로이스는 자동차를 동업자인 롤즈의 이름을 합쳐 롤즈로이스라 이름짓고 영국은 물론 유럽전역에 대대적으로 롤즈의 판매망을 통해 선전했다.

얼마안가 롤즈로이스의 진가를 알기시작한 상류사회에서 유행을 불러 일으켰고 멀리 인도에까지 차의 인기가 전파되었다. 당시 고작해야 2기통 아니면 4기통차가 겨우 나와 다니던 시절이다.

롤즈와 로이스는 6기통엔진을 개발, 안락하고 든든한 구조의 스피드가 빠른 최고급의 롤즈로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차의 구석구석에 정성이 간, 그야말로 기계예술의 극치를 이룬 작품으로 탄생된 자동차였다. 이차가 나온때가 1906년. 이때부터 롤즈로이스의 대표격인 이차를 「실버·고스트」즉 「은의 유령」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특히 귀족과 부호들에게 크게 어필, 오늘날까지 최고급으로 권위와 위엄을 떨치고 있다. 예술품이니만큼 값도 무척비싸 서민들은 아예 꿈도 못꾸게한 자동차로도 관록을 지녀 오고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소중한 財產을 위협 합니다.



프랑스「최고의 知性人」은

—月刊文學「리르」誌서 20人선정

人類學者 레비스트로스 1位

2位는 社會學者 레이몽·아롱

哲學者 푸코 3位, 라캉 4位

「세계의 지성」으로 꼽히는 사르트르의 사후1년, 오늘의 프랑스는 그에 버금가는 영향력있는 사상가나 작가를 갖지못한채 「지적인 공백」상태에 놓여있다. 프랑스의 지성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곳의 젊은이들과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어왔으나 오늘의 프랑스 지성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같이 프랑스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있다.

프랑스 지성사의 한전통을 이루는 좌익운동은 이미 환멸을 경험했고 누보·로망(신소설)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신철학은 아방·가르드(전위)의 틀속에 갇혔는가하면 누벨·드라트(신우익)는 지지부진한 상태에있다.

그러나 프랑스 지성의 전통은 그렇게 쉽사리 끊길만큼 기반이 약하지만은 않다.

최근 프랑스의 한 월간문학지인 리르가 독자조사를 통해 프랑스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20인의 지성인을 선정한바에 의하면 아직도 프랑스의 지성은 건재한것으로 나타났다.

동지조사에서 현존하는 프랑스의 지성인중 가장 영향력있는 인사로 첫손꼽힌 사람은 구조주의의 대가인 인류학자 클로드·레비스트로스(73).

-「신화학」,「슬픈열대」등의 그의 저서는 프랑스내는 물론 인류학전공자들과 전세계의 식자층에서 널리 읽히는 작품이다.

레비스트로스 다음으로 꼽히는 오늘의 프랑스지성은 사회학자이자 평론가·언론인·수필가인 레이몽·아롱(76).

사르트르를 포함한 프랑스내 마르크스시트들과의 오랜 논쟁으로 유명한 아롱은 프랑스의 유력지 르·피가로나 렉스프레스등을 통해 프랑스 지식인 세계를 리드해왔다.

3위의 프랑스지성은 소장파 철학자인 미셸·푸코(55), 그리고 정신분석학자인 자크·라캉(80)이 그뒤를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리르지가 뽑은 20인의 지성인중 여성은 4명밖에안되는데 사르트르와의 계약결혼으로 너무나 유명한 「제2의 성」의 작가 시몬·드·보브와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프랑세즈의 회원이된 작가 마르그리트·유르스나르, 「히로시마 내사랑」, 「앙데스마씨의 오후」등의 작품으로 문학과 영화의 부문에서 모두 세계적 명성을 갖고있는 마르그리트·뒤라스 그리고 클레르·브레트셰르 등이다.

이밖에 지난70년 공쿠르상을 탄이후 프랑스문단의 중견작가로 위치를 굳혀온 미셸·투르니에와 「신철학」의 기수로 꼽히는 앙리·레비, 부조리극의 대표적 작가인 외젠·이오네스코등의 이름도 꼽히고있다.

이같은 오늘의 프랑스지성들의 각계 분포도를 보면 특히 학자나 교수가 많은 것이 눈에띄는데 이는 프랑스지성의 풍토가 크게 바뀌었음을 시사하는것이다.

즉 20세기 후반에와서 지드, 카뮈, 앙드레·말로, 그리고 사르트르가 차례로 죽은후 이제 작가가 프랑스 지식사회를 움직이던 시대는 지나고 인류학·정신분석학등 각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이 지식인그룹을 형성하게된것.

즉 오늘의 프랑스지성은 더이상 사회에대한 예언이나 비판을 않으며 오직 연구에만 골몰하고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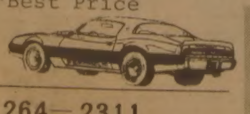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문의 : 487-5323
광고문의 : 738-7315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 $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저렴한 가격、성실성의것、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내고향 통닭집
내가 등진 저바다 건너
고국하늘 밑에 살고있는 부모형제를 그리는
향수…, 벗과 함께 쌓이고 쌓인 그 모두를
통털어 여기에 자리잡고 당신의 마음을 아는듯 기다리고 있는 전기구이
닭으로…, 아니면 고향의 내음이 담뿍풍기는 곰탕, 우동, 빈대떡, 만두 등등 조국의 얼로
집썸으며 마음 답답함을 달래보는 기회를 종종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537—0432
주소 : 658½ BLOOR ST. W.
(블루어×매닝)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당진향우회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향(당진)에서 오신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충남 당진에서 오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연락처 : 233—4359(Mr. 장)
534—0237(Mr. 구)
당진향우회

200萬弗犯人 護送員父子등 셋 체포

범인1명 裝甲車 직접運轉
空港가다 바꿔…캐딜락移送
共犯妻, 가짜돈뭉치 싣고 따라와
FBI발표

【뉴욕10日=金泰雄특파원】 서울로 공수되던 미화2백만달러 증발사건의 범인들이 사건발생한달만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당초예상한대로 현금을 미국 뉴욕의 리퍼블릭·내셔널·뱅크(RNB)로부터 인수받아 케네디공항까지 운송책임을 맡은 아머드·익스프레스(AEI)사의 직원이낀 조직범죄단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美연방수사국(FBI) 맨해턴 지부는 11일 새벽5시(한국시간) 이사건의 범인으로 당시 현금수송을 맡았던 AEI사의 호송원인 프랭크·J·마랄리(45)와 빈센트·강발리(38·브라이튼·비치양탄자회사주인) 그리고 이들과공모한 마랄리의 아들 알폰스·마랄리(19·오웬스트럭수송회사주인) 등 3명을 체포, 범인의 예비심리에 넘겼다고 공식발표했다.

29萬5千餘弗회수…"한국人 관련없다"

FBI맨해턴지부 조·밸리세트공보관은 이날 FBI서 29만5천5백달러가 회수됐으며 범인들은 검거된3명외에도 수명이 더있다』고 밝혔다. 밸리케트공보관은 또 이사건은 공범자중의 한사람인 AEI사 직원 스티브·무이가 범행에관한 중요진술을 해와 이를토대로 이 범인들을 붙잡게된것이라고 덧붙였다. FBI는 회수되지않은 나머지 현금을찾기위해 수사를 계속하고있으며 현금 회수액은 앞으로 더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로서는 이사건에 한국인 관련자는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으로 검거된 3명중 프랭크·마랄리는 사건당일 아머드·익스프레스운송차를 직접 운전한 기사로 밝혀졌으며 운송차에 타고있던 4명의 직원 모두가 이사건에 관련된것같지는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FBI에 따르면 빈센트·강발리와 프랭크·마랄리는 재판결과 유죄로 확정되면 징역10년 또는 5천달러의 벌금형이나 징역10년과 5천달러의 벌금형을 동시에 받게된다. 또 알폰스·마랄리가 유죄로 판명될경우 5년 징역 또는 1만달러의 벌금형이나 5년징역과 1만달러의 벌금형을 동시에 받게된다. 한편 FBI당국은 무이의 제보에따라 현금바꿔치기는 현금수송차량이 케네디공항에 도착하기전에 차안에있던 현금행낭 5개를 빼내 적백색 캐딜락에 싣고 그대신 백지뭉치가든 가짜 행낭 5개를 현금운반장갑차에 실은사실을 밝혀냈다. 이 적백색 캐딜락은 범인의 빈센트·그랜버리의 부인 안나의 소유인데 안나는 가짜 돈뭉치를 캐딜락에싣고 현금수송장갑차 뒤를 따라온것으로 밝혀졌다.

共犯무이 陳述엇갈려 端緒

[illegible]

나머지 百70餘萬弗 수사進行, 회수期待
美 TV방송 主要 뉴스로

[illegible]

◇FBI、수사결과 발표 FBI뉴욕사무소의 리처드·브리핑특별수사관이 기자들앞에서 2백만달러증발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右側은 金泰雄본사특파원.
【뉴욕支社電送→東京支社→KIT수신】

"共犯提報…수사急進展"
FBI 두要員과 一問一答

[illegible]

"犯人 몇명 더있다…美銀行員관련 追跡"

[illegible]

日外相, 1월중 訪韓
經協타결協議 年內엔 實務者파견

【東京11日=宋孝彬특파원】 사꾸라우찌·요시오(櫻内義雄) 일본외상이 고착상태에 있는 韓日경협문제를 타결하기위해 내년1월중 한국을 방문하게될것이라고 일본의 고위당국자가 10일 밝혔다.

★관련기사2면

이 고위당국자는 사꾸라우찌외상이 盧信永외무장관과 韓日외상회담을 갖기에앞서 오는20일이후 기우찌·아끼다네(木内昭胤) 아시아국장을 한국에 파견, 81년도 엔借款뿐아니라 한국의 제5차5개년 경제개발계획내용및 60억달러 對韓차관문제등에관해 실무자간 예비협의를 갖게될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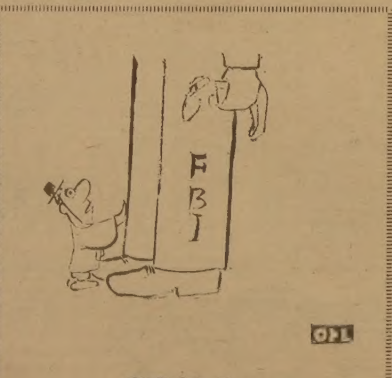
이 고위당국자는 기우찌국장이 서울을 방문, 실무자회담을 통해 한국측과 전반적인 경제협력촉진을 한다는데 기본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 사꾸라우찌외상이 1월중 방한, 외상회담을 열고 일본측의 對韓경협금액을 제시할수 있게될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

北傀, 또 銃擊도발
10일저녁中部DMZ 2分間AK小銃亂射 我軍 즉각應射…피해없어
아시안게임·88올림픽 妨害술책인듯

[illegible]

社会漫評



實感나는군…

地平線

[illegibl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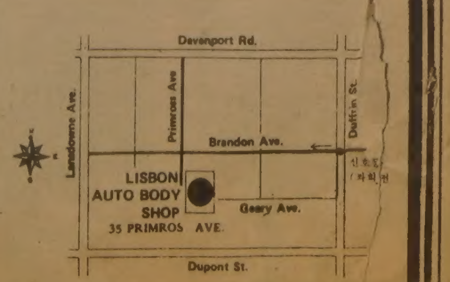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개업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능숙한 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한국일보 詩壇

한힌샘 스승 옮겨 장례 모시며 드리는 시

이 은 상

한힌샘 우리 스승
이 땅에 태어나시어
한 평생 오직 한 길
우리 말 글 키우시니
그 공덕
어디다 비기리까
해달같이 빛나옵니다

겨우 서른 여덟 해
짧은 한 뉘 사시는 동안
사가 몸은 돌보지 않고
겨레 위해 바치신 이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그리워집니다

세상을 여의시던 날
윗사람들 어질지 못해
끼치신 몸、값진 비단으로
입혀 드리지 못하옵고
좋은 산、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모시지도 못하고

가신 지 예순 일곱 해
누워 계신 자리마저
한강 언덕으로、양주 산골로
얼마나 괴로우셨소
스승께
죄송한 말씀
어제 다 아뢰오리까

동지들 뜻을 모아
정성껏 뼈를 거두어
관 위에 태극기 덮고
한 키론 국화랑 얹어
새로이
겨레의 이름으로
옮겨 모시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
깨끗한 언덕、포근한 땅
여기는 해와 달이
지켜 주시는 명당이오다
이제는
길이 간 곳이오니
편안히 쉬시옵소서

【한힌샘은 周時經선생 아호임】

國內프로야구 정식出帆

어제 6팀代表者 創立총회 열어

◇꿈에부푼 創立總會 오랜 진통끝에 마련된 한국프로야구위원회 창립총회。각 구단 대표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徐鐘喆총재가 프로야구의 기본설계를 펼쳐보이고있다。

本據地문제 原案대로확정

斗山、MBC와 서울선수 1對2配分

各球團、곧 코칭스탭·選手스카웃나서

국내스포츠에 새로운 章을여는 프로야구가 11일하오2시 롯데호텔2층 에머럴드룸에서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정식출범했다。해태(金明河) 롯데(韓英國) 斗山(朴泰鳴) MBC(金炳注) 三美社(李赫根) 三星(金□□) 등 6개구단의 구단주를 대리한 대표들은 오래동안 협의쟁점이되어왔던 본거지문제를 원안대로 확정짓고 정관을 통과시킨후 徐鐘喆씨(한국반공연맹이사장)를 한국프로야구위원회 초대총재로 추대했다。

오랜 진통끝에 마련된 이날 창립총회 절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것이어서 불과 10여분만에 끝났다。사무국을 관장할 사무총장은 徐鐘喆총재의 임명과 구단대표들의 승인절차를 거쳐 그동안 프로야구추진과정에서 산파역을 맡았던 李容一씨(경성고무대표·前야구협회전무이사)로 결정됐으며 구단대표들에의해 朴英俊씨(경향신문감사)가 감사로 선출됐다。

각구단들은곧코칭스태프4명과 연고지별 선수(28명) 스카웃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주요 쟁점이 됐던 斗山의 연고지변경은 보류됐고 선수 스카웃에서만은 大田지역외에 서울출신선수를 MBC와 1대2의 비율로 드래프트하는것으로 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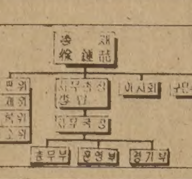
초대총재 徐鐘喆씨

한국프로야구 위원회의 초대총재로 선출된 徐鐘喆씨(57)는 육사1기생으로 46년임관、72년 대장으로 예편할때까지 1군사령관、육참총장 등 군요직을 두루거쳤으며 73년국방장관을 역임했다。학창시절 日本宮崎縣立商高 야구부에서 투수및1루수겸 4번타자로 야구에 특기를보였고 61년 육군야구단장직을 맡으며 야구와 인연을 맺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프로야구 6개구단

구단(기업주)	팀명	본거지	감독
롯데(辛格浩)	자이안츠	釜山	朴永吉
三星(李秉喆)	라이온즈	大邱	徐永武
해태(朴健培)	타이거즈	光州	金東燁
三美社(金顯哲)	슈퍼스타즈	仁川	미정
斗山(朴容昆)	OB베어스	大田	金永德
MBC(李振羲)	미정	서울	미정



◇한국프로야구 위원회

OB베어스監督 金永德씨 선임

프로야구단 斗山(대전) OB베어스는 초대감독으로 金永德씨를 선임했다。金永德씨는 日本프로야구 난까이(南海) 호크스에서 투수로 활약했으며 귀국후 국가대표선수、청소년대표감독、天安北一高감독을 역임했다。한편 三美社(인천)는 팀이름을 「슈퍼·스타즈」로 결정했다。

"國家代表入團보류"

徐總裁 記者회견

徐鐘喆한국프로야구위원회총재는 11일 창립총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같이 프로야구의 진로를 밝혔다。

—세계대회를 앞둔 아마야구와의관계。

▲상부상조해야한다는 원칙아래 앞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다지겠다。일단 국가대표선수들에대한 프로입단은 보류토록했다。

—실업팀입단이 내정된 우수선수가 프로로 전향할때실업팀에대한 보상은。

▲선수개인이 해결할문제다。

—프로입단선수의 장래보장은。

▲일정기간이상 활약한 선수에게 年功보너스지급、은퇴후 영구연금 지급、우수노장선수의 조기은퇴후 구단방계회사 취직등 3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선수계약과 연고지 적용은。

▲결정된 연고지별 선수들에 의해 계약하게된다。다만 忠南·北의 斗山에 대해서만 MBC 드래프트로、서울선수를 3분의 1스카웃、부족선수를 충당케 할작정이다。

—경기운영은。

▲연간 팀당 1백30게임、홈·앤드·어웨이 방식이다。계절로 보아 5월하순께부터 나이터 경기로 진행되며 그이전에 각구장 조명시설이끝난다。

주간女性

블론디

本社特約·連載漫畵 딘·영作

"쿨" "쿨"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모두 먼지를 털어야 한다구요!"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成大농구선수 公募 보도되자 在美同胞가 太平洋건너 지망

가족과 職場까지 팽게치고

美大學선 키작아 主戰못돼

13年前 이민, 테스트결과는 훌륭

◇농구선수가 되겠다고 단신으로 成大를 찾아온 브루스·鄭

◆…成均館大가 농구선수를 공모한다는 한국일보 기사를 읽은 在美동포 선수가 단신으로 成大를 찾아와 화제。농구선수가 되겠다고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찾아온 선수는 在美동포 2세인 브루스·鄭(26)。13년전에 이민、미국시민권까지 소지하고 있다。브루스·鄭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성림장로교회 鄭○○(70)목사의 1남4녀 가운데 외아들。

브루스·鄭은 고등학교서 농구를 했고 피어스대학 2학년까지 다니다 73년 美軍에 입대、3년간 외전부에서 복무하기도 했다。그후 대학에 복교하지않고 보험회사 자동차사고담당을 맡아보던 鄭은 成大가 농구선수를 공모한다는 기사를 읽고 서슴없이 한국을 찾아온것이다。

대학에서도 농구 축구 배구등 운동이라면 닥치는대로 했다는 鄭은 키가 1m74 밖에 되지않아 항상 신장에 대한 콤플렉스를떨칠수가 없었다。고교때부터 가드로활약한 鄭은 「나와같은 신장을 가지고는 美國에서 농구선수로 클수없다。한국에서는 가드로서 1m74의 신장으로도 농구선수를 할수있을것같아 가족도 버리고 찾아왔다」고 말하고있다。

결혼 까지한 鄭은 成大에서 입학을 시켜준다면 농구선수로 커보겠다는 대단한 각오。테스트결과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은 鄭은 아직 成大 입학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鄭昌國 成大코치는 「키는 국내선수들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美國서 농구를 하고있어 국내 농구와 얼마나 빨리 조화를 이룰수가 있느냐가 문제다。미국서 농구가 한국에 정착할수있는 좋은기회다」고 말하고있다。

鄭이 成大 입학이 허용되면 외국인 장학금도받을수있고 군복무자가 대학에 들어가면 받을수있는 보조금을 매월 5백20달러씩 美國정부로부터 받게되어 국내생활에는 별 어려움이없을것으로 보인다。가족과직장을 버리고 成大를 찾아온 鄭군의 뜻이 받아들여지느냐는 문제만이 남아있다。【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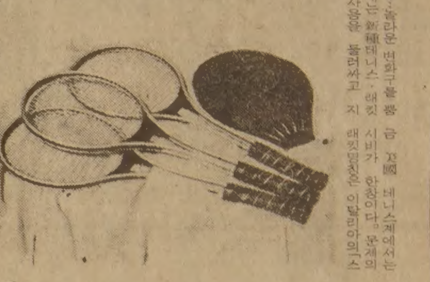
● 스포츠話題

魔法의 슈퍼게티래킷

변화 무쌍한 曲球빚어

보통래킷보다回轉60%많아

美、公式대회 사용금지



◆…놀라운 변화구를 뿜어 내는 新種테니스·래킷의 사용을 둘러싸고 지금 美國 테니스계에서는 시비가 한창이다。문제의 래킷명칭은 이탈리아의「스파게티」와도 같은 曲球를 빚어낸다해서「스파게티·래킷」。이래킷의 규격은 보통 래킷과같으나 세로10줄、가로5줄의 이중 거트로 메어져있다。

美國 테니스협회는 이래킷의 작용을 테스트한결과 볼에 가하는 톱스핀(회전)수가 보통것의 30~60%가 더 많다는 사실에 경악、공식대회서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스파게티·래킷 사용시비는 법정에까지 번져 연방고등법원이 美國테니스협회의 사용금지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판결。

그러나 스파게티·래킷의 효용에 맛을 들인 일반사용자들의 기세가 만만치않아 이래킷을 둘러싼 시비가 손쉽게 끝날것 같지는 않다。

현재 일반선수들에게 보급된 래킷종류는 컨벤셔널(보통크기)、킹사이즈、레전드(초기 연식정구래킷모양)의 3가지로 모두 래킷크기와 모양이 달라 타구의 심도가 다르나 거트모양은 일정하다。【外紙에서】

金東光선수 은퇴

이번종별籠球끝으로…企銀코치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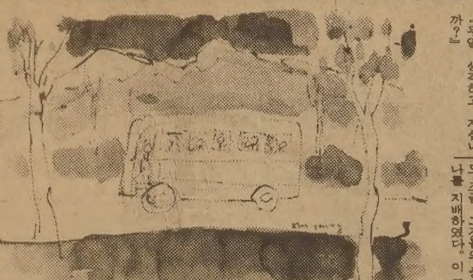
◇金東光

남자농구 국가대표팀 주장 金東光(30·기업은행축구부 대리)선수가 체력의 한계를 이유로 12일부터 장충체육관서 열리는 제36회 종합농구선수권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18년간 현역선수로 뛴 金은 내년시즌부터 企銀팀의 코치로 내정되어 있다。

二川松都中·高와 高麗大를 거친 金은 대학 4년때인 73년 제8회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필리핀 마닐라)에 처음 대표선수로 발탁된 이래 5차례의 아시아선수권、두차례의 아시안게임、1번의 세계선수권대회등에 출전해 왔다。1m84로 농구선수로는 단신인 金은 이국적 마스크와 다이내믹한 플레이로 그간 팬들을 매료시켰으며 지난 79년 연애 결혼한 李明姬씨(27)와 두살짜리 딸 志娟양 등과 함께 서울 東大門區 上鳳洞에 30평형 단독주택에 살고있다。

바다에서 플롯을 <2>

梁順錫 作 金鈴 畵



차창으로 비껴드는 겨울햇빛을 쬐기 위해 커튼의 주름살을 한군데로 묶었다。한줄기의 빛이 나를 거쳐 그의 무릎에 걸쳤다。무릎에 올려놓은 그의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솟기를 드러내고 있었다。무언지 추할 수는 없으나 그는 분명 지친 사람이었다。확실하며 구체적인 현상은 발견할 수 없어도 그 내면의 불투명하나 더욱 절실한 고뇌를 본듯 했다。단지 그 최초의 느낌이 무엇보다 내겐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고통받는 자에게의 위안은 더욱 큰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이것은 누구의 말이었던가。어느 위대한 자의 말씀도 아니면서 갑자기 뇌리에 떠올라 지워지지 않는 말처럼 누구나 진실하고 영원한 말 한 마디쯤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무엇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가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의 옆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다。벌려진 입 사이로 송곳니 위의 덧니가 보였다。그런데 갑자기 그 덧니를 보는 순간 그와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아득한 시간과 공간의 더께가 걷혀지고 전혀 낯설지 않은 사람의 그를 보는 것 같았다。

『알 수 없군요』

『무엇을 말입니까?』

『제 자신을 말예요』

『알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이 왜곡되던 때、거짓과 위장과、이기적인 유혹이 범람하던 때였다。중복되는 거짓과 위선은 진실을 마비시켰고 나는 진실을 말하는 방법도、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오래전에 잃고 말았다。철사줄처럼 얽기설기한 기교만이 빈 가슴에 엉켜있었다。진부한 기교만이 매연과 함께 가득 들어찬 도시로부터 질식할 것만 같은 정신과 육체를 이끌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보장없이 바다로 향한 나는 어떤가。

『인간이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그게 뭔지 아십니까?』

『식욕』

『톨스토이를 읽으셨군요』

『그래요。톨스토이를 읽었어요。아니、그 정열의 여자가、죽음을 향해 가면서 독백하지 않던가요?』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책 중에서도 한 줄의 문장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버스에서 만나다니 경이로운 기분이 듭니다』

세상은 마치 안개와 같았다。아무것도 극명한 것은 없었다。기쁨도 조금、슬픔도 조금、사랑도 조금、증오도 조금、그것들의 중간색이 나를 지배하였다。이 끝없는 정체(停滯)가 내게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느끼게 하였다。남자가 여자에게 바라는 것과、여자가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규격화된 본능、그 일률적인 천박함이 아니었던가。

그의 덧니를 보았을 때 끝을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밀에의 예감이 나를 전혀 새롭고 신선한 욕망에 흔들리게 하였다。뭇남자와 뭇여자가 서로에게 느끼는 제각기의 탐욕과는 다른、다르다고 말하고 싶은、그런 욕망이었다。

버스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제한량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히터가 조절해주는 차내 온도는 쾌적하였다。나는 의자를 비스듬히 뒤로 젖히고 그 경사진곳에 내 몸을 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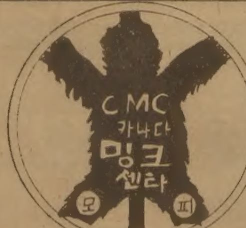
『멀미가 나십니까?』

그가 정감을 가득 담은 어조로 내게 물었다。

『아녜요』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업무국) (212) 784-4500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유일한 한국인의 털도매상

털공장에서 직접세일

각종 모피 도매와 각종 털 가공품을 도매하고 있는 카나다밍크센터에서는 각종 털제품을 교포들께서 직접 털공장에서 마음껏 선택하시며 도매값으로 구입하시도록 매주 금, 토 양일에 공개전시및 판매하오니 많은 구경과 애용 바랍니다. (특히 미국이나 타주에서 털사업을 계획하신 분들의 안내와 지도를 하고 있아오니 뜻이 있으신 분들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품목: 남녀노소 각종 털옷, 각종 털모자,
각종 털목도리, 각종털칼라, 각종 스톨,
각종 케이프, 각종 자켙트, 각종 모피

때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장소: 캐나다 밍크센타

1422 – 1424 QUEEN ST.W.3층

전화 : 535—7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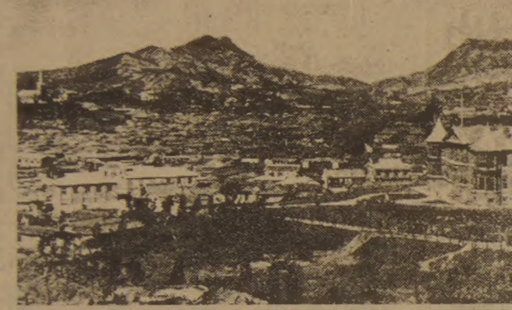
의료선교에 얽힌 이야기

나의 이력서

〈醫字·元一漢〉

元 一 漢 ⑮

女子간호원 없어 男子쓰기도



◇의료선교의센터였던 세브란스병원과 의학전문학교는 남대문밖 복숭아골 우리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었다.

農村진료나가서는 治療와 함께 전도지나눠줘

東京의 視角

양국關係개선 適期로 判斷

包括的 새妥協案 다시내놔

【東京＝宋孝彬특파원】

韓日經協 타결에 새突破口 열렸다

年內 實務접촉·來1月 外相회담 계기

對韓60억달러 經協문제로 3개월동안 膠着상태에 빠진 韓日관계는 스즈끼內閣의 改編을 계기로 再開될 기미를 보이고있다。특히 韓日간에 외상회담에 의한 정치적 妥結과 先실무자회담으로 맞선 가운데 일본이 새로제시한 1月외상회담案은 교섭再開의 실마리가 될지 모른다는점에서 注目이되고있다。서울과 東京의 視角에서 교섭을 診斷해본다。【政治部】

◇사꾸라우찌外相

◇盧信永외무장관

서울의 視角

額數조정·妥結時點에 관심

日정부改閣 來10월타결예상

【金勝雄기자】

리비아 美國人 撤收令

레이건 여행도 制限할듯

◇윌리엄·클라크 美국무차관이 10일 국무성에서 在 리비아 美國人들의 가능한 빠른 출국등을 내용으로하는 레이건대통령의 최근 지시에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워싱턴10日AP＝聯合】

알렉세예바 14일 여권發給

蘇당국 "곧 사하로프夫妻방문허용"

리비아暗殺團 身元 책·앤더슨이 公開

리비아 暗殺團 허위를證明 調査團찬성

국제暴力團의 巨物 暗殺團「카를로스」

佛外相 訪이發言 파문

"무기판매 再開가능" 아랍圈 거센반발

中共自由勞組싹터

全人代부의장, 일부靑年 官營불만

中共 廣東省서 退役軍人 폭동

6천명 3일동안

中·印20년만에 첫公式會談

國境분쟁解消·交流등 협의

美勞動장관 入閣前 기업非違로 搜査중

◇노벨平和賞수상 폴·라늘링뉴엔 난민고등 판무관이 10일 81년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그의 소속단체를 대신하여 존·새니스오벡평화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금메달과 상장을 받고있다。【오슬로10日AP＝聯合】

兩獨頂上 어제對坐

관계改善방안 논의

뉴욕의 韓人 역경속成功

위신·근면성·높은 敎育수준으로

NYT특집보도

現代人의 健康百科

大氣중의 危害物質

우리가 숨쉬고있는 대기중의 오염물질은 그지방주민의 사망원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60명의 생명을 앗아간 1930년대 벨기에의 뮤스 골짜기 공해사건을 위시해서 7천여명의 호흡기병환자를 발생시키고 20명의 목숨을 앗은 1948년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도노라공해사건서의 1백50명이 죽어간 1966년의 미국뉴욕공해사건, 3백여명의 생명을 앗은 1972년 영국「런던」공해등은 질이 섞여 나오고있다는 사실은 도시인을 한층 긴장시킨다。한시라도 숨쉬지않고 살수없는 우리들로서며 를 측정평가하고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우리가 숨쉬는 大氣속에 발암물질이 있고 매일 피우는 담배연기속이나 즐겨마시는 맥주속에도 발암물질이 있다는것은 이미 잘알려진 이야기이다。문제는 이들의 量에 좌우되고 어느정도의 물질이 어느정도의 건강장해를 미치느냐 하는것이다。하지만 여기엔 규명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공해와 환경관계법규제는 자동차업계를 위시해서 각종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즉 규제가 엄

지역住民 死因과 밀접한 관계…런던선 3백명도

역사에남은 대기특이지만 이같은끔찍한 사건말고도 대기오염으로 해서 건강을 해치고 이로해서 죽어간 일들은 얼마든지있다。

그렇다면 대기의 오염물질중 어떤오염물질이 사망원인이 되고 다른어떤종류가 어느정도의 건강위해를 도시민에게 미치고 있는것일까。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규명해야할 일들이 아직 많이남아있다。하지만 최근들어 매스컴에 크게 보도된대로 자동차배기 가스에 발암물 간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기때문이다。따라서 건강장해물질을 제거해야한다는 주장에는 異論이 있을수 없다。미국 연방정부가 규제하고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크게 5가지를 꼽고있다。

아황산가스 (SO_2), 粉塵 (煤煙과 煙霧등포함) 光酸化物質 (오존등), 이산화질소 (NO_2), 一酸化炭素(Co)가 그것이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아황산가스 만을 규제 하고있어 제대로 대기오염도 하면 엄할수록 산업은 그만큼 위축되게 마련이다。그렇다고 매년 증가하는 대기오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모든도시인은 숨찬증상을 갖고 노년기를 지내야한다。따라서대기오염은 전체적인 면에서 다루되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보다 엄히 규정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金 建 烈

(醫博·서울大醫大호흡기내과교수)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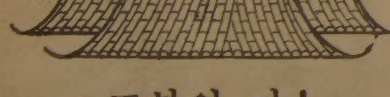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과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쪽의 다가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200萬弗증발 검거된 犯人은 下手人

운송회사共犯이 自白 매듭풀려

主犯등 背後조직 4~5명 추적

은행·運送社·외부인 3角組織인듯

【뉴욕=金泰鐵특파원】 미화2백만달러 증발사건은 미연방수사국(FBI)이 사건수사1개월만에 해결의 매듭을 풀었다。범행이 뉴욕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당초의 정확한판단아래 집중수사끝에 현송회사였던 아머드 익스프레스(AEI) 내의 공범자로부터 수사단서를 얻기에 이른 것이다。FBI가 수사전모를 모두 밝히지 않고있어 확실치않지만 검거된3명과 「자백자」는하수조직이며 주범등 배후조직4、5명에 대한 FBI의수사가 계속 중인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범인들이 리퍼블릭 내셔널뱅크와 서울외환은행과의 교신내용을 계속관찰 추정했고 한국 외환은행내의 사정까지 잘알았던점으로 미루어 미국은행내에 공범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美國은행에 共犯있을 가능성 높아

또 다른 관계자도 현금이 바꿔치기된 장소와 시기가 뉴욕리퍼블릭 내셔널뱅크(RNB)에서 현금을 인수한후부터 AEI회사가 보관했다가 뉴욕 케네디 공항으로 출발하기전 까지 일어난것으로 보인다고 지적、AEI의 직원과 은행원、그리고 외부조직의 3각조직이 있다고보고 수사가 진행중임을시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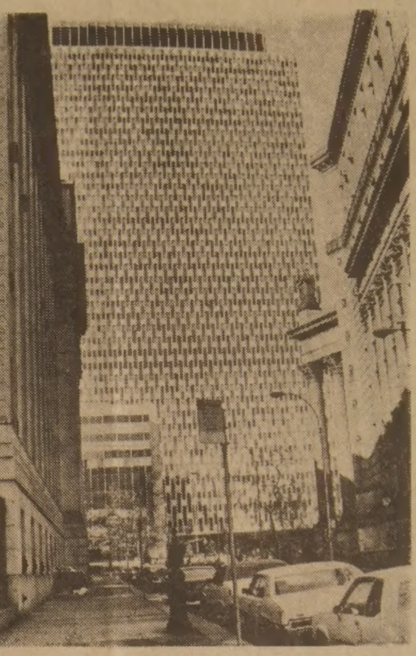
한편 이곳 금융계인사들은 바꿔치기된 현금이 여러조각으로 분배된뒤 1개월이 지났기때문에 일당을 모두 검거하더라도 전액을 회수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

또 조직범죄단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발표됐지만 범행성격상으로 미루어 범인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치밀한계획을한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뉴욕에서 범인이 잡힘으로써 한국과는 관련이없음이 밝혀졌지만 한국외환은행이나 현금수송을맡은 대한항공등은 이번사건을 거울삼아 현금거래및 수송에 한층 신경을 써야할것같다。

미국경찰수사가 심증만으로 용의자를 연행、강제수사를했다면 사건은 좀더 일찍 해결될수있었으나 증거 제일주의로 수사를 펴왔기때문에 시일이 걸린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경찰은 한국에서 증거물로 발견된 종이、납북、행낭등을 증거로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니고 KAL직원도 관련이 없음을 내사했다가 FBI의 수사협조 요청을받고 내사결과를 통보했었다。



FBI 뉴욕支部가 들어있는 41층 높이의 연방정부빌딩。건물 이름은 자코브·K·자비트빌딩이다。

犯人 예비심리送致

【뉴욕11日UPI=聯合】 2백만달러를 가로챈 범인3명은 10일 체포돼 절도혐의로 법원의 예비심리에 넘겨졌다。

美관계당국에 따르면 프랭크·머레일(45)과 그의 아들 앨폰스(19) 빈센트·갬베일(38)등 3명의 용의자는 이날짜로 뉴욕 브루클린지방법원의 예비심리에 넘겨졌으며 이들에 대한 1차심리가 오는21일 열릴 예정이다。

모든犯行 美國서

RNB와 2백만달러 현송에 대한 보험계약을 맺은 영국 로이드보험 한국총대리점 협성해운 검정부장 金基學씨(35)는 11일아침 범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부터 모든 범행이 미국쪽에서 이루어졌다는 심증을 가졌지만 이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되지않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金씨는 이보험계약이 RNB뉴욕본사와 로이드보험간에 체결된것이기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알수없다고 말하고 『통상적으로 현금전액이 회수되면 보험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회수되지못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로이드측이 RNB에 보험금을 지불하게된다』고 밝혔다。

"犯人 빨리잡혀 다행"

外換銀 짐 벗어버린듯 밝은表情

외환은행측은 범인들이 의외로 빨리잡혀 사건이 빨리 종결된것을 다행스러워 하는 눈치였다。

특히 현송담당부서였던 외환부는 鄭運暎부장과 관계직원들이 경찰조사와 보도진의 취재로 한달가까이 홍역치른 듯시달려왔던터라 무거운짐을 벗어버린듯홀가분한표정들。

다른부서 직원들은 추가관련자가 누구이며 아직못찾은 1백70만달러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運送 더완벽하게 KAL 趙부사장

대한항공 趙重建부사장은 11일상오 2백만달러 증발사건 범인검거소식을 듣고 『운송책임을 맡았던 항공사로서 개운하다。KAL은 이사건을 계기로 현금 운송절차상의 미흡점을 찾아내 완벽을 기할방침』이라고말했다。

事件일단락 홀가분 KAL 崔機長

케네디공항에서 문제의 백지행낭을 인계받았던 KAL 崔正滿기장(47)은 범인검거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꺼림직한 기분에서 비행도 못나가고 심리적 고통이 컸는데 사건이 일단락되어 홀가분하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崔기장은『조간신문에서 아머드 운송회사 직원이 관련됐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말했다。

「民事소송救助」활성화

俞大法院長 法院문턱 낮춰 庶民보호

말썽法官은 엄단…國選변호 적극 활용

俞泰興대법원장은 11일『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제도를 적극활용함은물론 소송비용이없어 민사소송을 내지못하는 서민들을위해 법원이 이를 구조해주는 민사소송구조제도도 활성화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俞대법원장은 이날 상오10시 대법원회의실에서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훈시를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법원의문턱이 높아 발길을 돌린다든지 비용이나 지식의 결핍으로 법원을 찾지못하게된다면 법원은 이러한 국민들에게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게될것』이라고 지적、법률복지 실현에 힘써줄것을 강조했다。

俞원장은 또『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더 쉽게 고쳐 판결문을 비롯한 모든 문서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반사회에서 통용되지않는 어휘를 쓰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俞원장은 또 법조계의 해묵은 숙원인 민·형사 소송규칙을 시급히 제정하고 등기를 비롯한 사법관계법규들을 재정비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俞원장은 이밖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태롭게 하는 사법인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릴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특히 법원장들은 휘하직원들의 가정사정까지도 자세히 파악、감독해 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사소송구조제도란

민사소송비용을 낼능력이 없는사람이 소명자료를 갖춰 신청할경우 법원은 승소가망이있다고 판단되면▲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고▲집달리의 보수나 법원에서 선임을명한 변호사의 보수지급을 유예하며▲소송비용의 담보를 면제해주고 재판승소 확정판결의 비용을납입받는제도다。

이제도는 민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으나 우리의 경우 전국 각법원에서 소송구조혜택을 받은 사례는단 5건에 불과해 이제도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돼 있는 상태에었다。

治安本部 8백66명구속…社會격리·醇化교육

暴力輩 2천1백51명 검거

치안본부는 12월5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서 상습및신흥 조직폭력배 2천1백51명을 검거、이중 8백66명을구속하고 1천83명을 입건하는 한편 2백2명은 즉심에 넘겼다고 11일 발표했다。

경찰은 구속된 폭력배들을 사회보호법에 따라 감호영장을 신청、사회와 격리토록하고 입건또는 즉심에 넘겨진 폭력배들은 일선 경찰서별로 정신순화 교육을 실시、재범을 막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해 5·17조치후 폭력배들을 사회정화작업의 하나로 단속해오다 연말을 맞아 집중단속한것인데 사전조사를통해 모두3천4백63명의 명단을 만들어 오는 21일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단속된 폭력배들을 유형별로보면▲유흥업소주변의 중간착취、경제폭력배가 1천2백46명▲터미널、유흥및사창가극장、학원주변의 상습폭력배가8백83명▲약점을악용한 공갈、채권채무등 상습공갈사기배가 18명등이다。

三票연탄代表등에 징역1년6월求刑

低質炭사건

서울지검 특수부 崔慶元검사는 11일 저질연탄폭리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삼표연탄대표 韓東鎭(60)、삼천리산업연탄담당 상무 丁大植(43)、대성산업연탄사업부 상무 金泌鉉(52)피고인등 3명에 대해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變電室누전 불

새벽 4店鋪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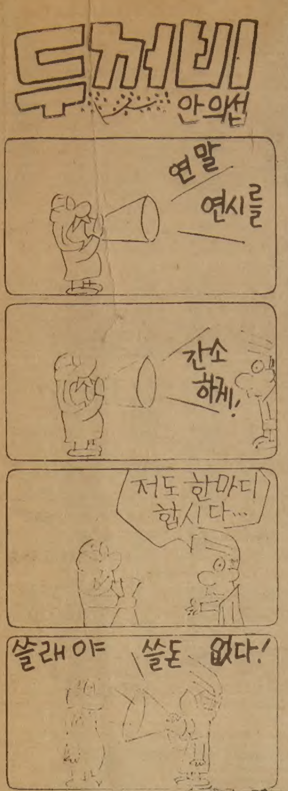
11일 새벽7시30분께 서울龍山區元曉路3街52의4 대진화학(대표 金仁植·32)변전실에서 전기누전으로 불이 나 대진화학·대진브라인더·기림상사·유림화학등 4개 점포가 들어있는 2층목조건물 1백30평중 70여평을태워 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분만에 꺼졌다。불이났을때 이건물에는 沈元燮씨(32·대진브라인더종업원)등 5명이 자고있었으나 모두 재빨리 빠져나와 인명피해는없었다。

旅館주인딸 殺害犯

釜山地法 死刑선고

【釜山=聯合】釜山지법 형사4부(安文泰부장판사)는 10일 경도장여관 주인딸 살해범인 許泰旭피고인(26·주거부정)에게 살인·강도상해죄등을적용、구형대로사형을선고했다。

許피고인은 지난 8월19일 상오4시30분께 西구富民동1가4 경도장여관(주인 具愛子·47)에 흉기를들고 침입、1층 안내실에서 잠자던 주인 具여인을 깨워 금품을 털려다 비명소리를 듣고 2층에서 뛰어내려오던 具여인의 딸 李貞姬씨(28)를 식칼로 마구찔러 숨지게하고 李씨의 남편 姜仁錫씨(33)에게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검거됐었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1億짜리麝香〈사향〉密搬入

20代해외就業 木工 귀국길에

서울세관은 11일 싯가1억원상당의 사향을밀반입한 吳英彰씨(25·경기도 안양시석수동 백조아파트101동402호)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현대건설 기능공인 吳씨는 지난 3월23일 중동코트트에서 목공으로 일하다가 귀국하면서 바레인에서 싯가1억원상당의 사향 2천3백9g을 구입、카세트부품속에 숨겨들여와 판매하려다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학생 특별善導나서

釜山敎委 방학동안

【釜山=聯合】釜山市교육위원회는 10일 겨울방학과 연말연시기간중의 학생탈선방지를위한 특별선도대책을마련、각급학교에 시달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탈선사고가 발생하기쉬운 독서실·유기장등 우범지대에대한 교외지도를 강화하고 여행·등산은 학교장승인을받아 지도교사인솔하에 실시하는한편 불량교우관계·서클등을 사전에 파악、사고를 미연에방지토록했다。

또 연말연시를 가족과함께 보내기·허례허식근절·검소한 졸업식 졸업전후의 특별지도실시를 아울러 당부했다。

◇『딸랑 딸랑』,『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세모인파의 발길이 바빠진 도심지에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등장했다。서울 光化門지하도를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지에는 11일부터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모습을 나타내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온정을 호소하는 구세군의 딸랑종소리가 울려퍼져 연말을 실감케했다。구세군은 자선남비에서 모아진 성금으로 의지할곳없는 노인 고아 영세민등을 돕게된다。

歲暮거리 慈善남비 등장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술값시비 暴力휘두른 종업원 손님住民證으로 석방… 들통

○…서울麻浦경찰서는 11일 金永錫씨(20·서울西大門區滄川洞496)를 공문서부정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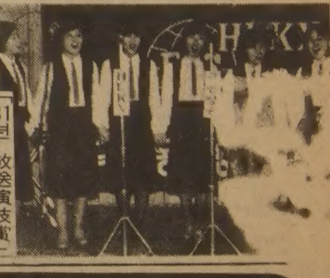
○…경찰에 의하면 金씨는 지난 11월16일 서울麻浦區老姑山洞 흑진주 생맥주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할때 술값시비끝에 손님 李모씨(34·경기抱川郡一東面)를 때려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서울麻浦경찰서 老姑山파출소에 연행됐는데 金씨는 경찰에서 값대신 맡아두었던 李潤章씨(22·서울龍山區新界洞1)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며 李씨로 행세했다는것。

○…金씨는 최근 폭력배 일제단속에 걸려 지문대조끝에 이같은 사실이 들통났다。

한국·福音聖歌 경연대회

百48個팀 참가 14일世宗文化회관

제1회전국복음성가경연대회(극동방송주최)가 14일 하오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이번대회에는 모두 1백48개팀이 참가、2차에 걸친 예심을 거쳐 15개팀이 본선에서 경연을 벌이게되며 [illegible] 활동을 하고있는 [illegible] 윤형주、윤복희、이종용등 연예인들이 출연한다。극동방송은 입상자들에게 해외순회여행기회를 주기로 했다。



「81년 放送演技賞」

MBC는 「81년도 방송연기상」 수상자를 선정했다。시상식은 오는 29일 「TV송년특집쇼」에서 갖게 된다。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TV부문 ▲최우수상=[illegible] ▲우수상=[illegible] ▲신인상=[illegible] ▲특별상=[illegible] ▲라디오부문 ▲최우수상=[illegible] ▲우수상=[illegible] ▲특별상=[illegible] ▲공로상=[illegibl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977－9734

당신은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카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1－2361～4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목사님 청빙공고
교회 : 연합한인 펜티코스탈교회 (The United Korean Pentecostal Church)
본 교회는 Pentecostal Assemblies of Canada Western Ontario District 가입 교회서 성인이 약105여명 학생이 50여명 성도 회집하여 본교회를 인도해주실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①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안수받으신분.
②40세～50세전후
③목회경험 3년이상
④영어로 설교하실수 있는분
⑤운전이 가능한분.
⑥펜티코스탈 교단에 속하였거나 앞으로 인정을 받으실수 있는분
구비서류
①영어와 한글 자력이력서 각1부
②명함판 사진2매
③설교녹음 카셋트 약30분 이내의 설교2개
서류보내실곳
연합한인 펜티코스탈교회(The United Korean Pentecostal Church)
주소
300 QUEEN'S DRIVE TOR. ONT. CANADA M6L 1M5
전화 : 416－226－2583
416－223－1914 심 상 대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삐플렡
5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 431-4474, 439-4885(MR. 김)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Q ST. W.

애기 봐주실분 구함(입주 또는 출퇴근해서)
☎ 783-0683
536-5914(밤9시이후)Mrs. 하

파타임 헬퍼구함
3261 DUNDAS ST. W.
☎ : 769-5956

●오토바디샾에서 일할 경력있는 사람구함 좋은 보수와 우대함(남자 2~3냥)
●사무일보실 여자분 구함. (1명)
B)533-8507~8
R)439-6548(Mr. 리)

성실하게 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QUEEN ST. E.
☎ : 466-3995

● 도넛츠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아침 8시~오후4시(풀타임)
토. 일 아침8시~오후4시(파트타임)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 : 531-2689

매매및 양도

생선가게 매매 : ROYAL YORK & QUEENS WAY
259-1585의 JOE, OR
364-3883의 FRANK에게 연락요.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밀크스토아 급매(오타와)
주매상 : $5700
매네저 혹은 후렌차이스도 가능함.
☎ : 624-5817

고급코트를 만들수 있는 친칠라 사육을 원하시는분 소자본으로 지하실에서 사육할 수 있음.
☎ : 859-4366

이상적인 가족 비지네스(H·SALT 휘시 & 칩스, 휘트비)
그로스 : $2160/W 네트 : $930/W 아스킹 $60000
☎ : 683-7777(앤디·밴도라)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531-0773 Mr. 김 (직접내방바람)

집·방세·하숙

집세놓음
4BED ROOM 월 $500(PHARMACY × 세퍼드)
☎ : 757-6334(오후6시이후)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533-2361-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시세로 매매(책임보증)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기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882 김 수 홍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양장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화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츄리냉동 원종성, 이인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여행사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자동차수리

ROGERS GARAGE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춘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용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회계사무소

R.I.A. ACCOUNTING & TAX 김인규
844-0178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태권도

손영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홍수 태권도장(사범 박홍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부로 앞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환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기 타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카마구찌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2줄 1칸 …… 3 회 ………… $ 10.00
●2줄 1칸 …… 5 회 ………… $ 13.00
●2줄 1칸 …… 10회 ………… $ 26.00
50자 이내로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우편 도착 다음날부터 게재해 드립니다.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流星의 賦 <25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㉔

『부동의 동은 이미 말한 대로 검지시(劍之始)이며 검지종(劍之終)입니다. 내가 그 형(形)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렸소이다. 그런데 귀하는 그것을 밤실(?) 십일만에 섭취했으니 재(才)에 천지인(天地人)의 구별이 있다는 이치를 새삼스럽게 느낀 기분입니다』

가나이는 감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듯 그 말도 정중했다. 제남은 과분한 칭찬에 송구하다고 하고 싶었으나 어제 오늘 익힌 일어로선 뜻을 다할 수 없어

『하데 그 형만으론 시중(示衆)은 될지 모르나 실효(實效)가 있는건 아니지 않는가』

고 말했다.

『실효란 곧 상대방을 베는것이 아니오이까. 보다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오이까. 부동의 동을 취하면 상대방이 공격을 못합니다. 정여림(靜如林), 부동여산(不動如山)한 검지를 감히 누가 침범할수 있겠소이까. 평상에 다소의 소양이 있는사람이면 「부동의 동」앞에서 숙연히 머리숙이고 떠날것입니다. 만일 그앞에 덤비는 자가 있다면 그자는 진개(塵芥)와 같은 놈들일 것입죠 중한것을 중한줄 알고 스스로의 생명마저도 중히 여길줄 모르는 자들일까 합니다. 검의 지도(至道)는 그러니 불신(不新)의 참(新)에 있다고 하겠지요. 칼을 쓰지 않고 칼을 쓴거나 다를바없는 효과를 거둔다면 그로써 실효가 있다고 할수 있겠지요』

제남은 가나이의 말에 터득하는바 있어 질문을 좀 더 깊은것으로 이끌었다.

『부동의 동, 불발의 칼은 지도(至道)를 ...

...쓸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엔 지도로서 다스리지 못하고 중도(中道) 하도(下道)의 수단으로 다스려야하는 경우가 허다하옵니다. 그런 까닭에 말기(末技)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선생께서 말기에 관한 몇가지 지도가 계셨으면 하옵니다』

『옳은 말씀이요. 사물엔 본말(本末)이 있는것인즉 본말을 전도하는것은 불가하지만 본(本)만을 중히 여기고 말(末)을 소홀히하면 이윽고 그 본마저 칠경우가 있는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귀하가 말기를 묻는것은 매우 현명한 견식이라고 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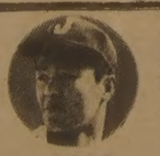
하고 가나이는 일어서더니 방장을 걷고 바깥으로 나갔다.

신일이 중천에 있고 벌레소리마저 멎은 정적속에 가나이는 칼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제남더러 어느 쪽으로부터라도 좋으니 공격해 보라고 했다. 제남은 광백수수도를 뽑아 들고 백원검법에의한 공격했다. 그런데 가나이는 홍풍에 버들처럼 가볍게 몸을 날려 제남의 공격을 흘려버렸다.

그리곤 수합(數合)이 있은후 가나이의말이 있었다.

『어떤 몸놀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겐 위험이 다치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격자는 피하게 되는 그방향을 향해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소양이있는 검객은 그것을 미리 알고 본능의 반대방향으로 운신(運身)합니다. 그러니 이편에선 그요령을 알고 그운신의 방향으로 칼을 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본능의 방향으로 운신하는지 그 그호흡의 파악이 검의 요체(要諦)라고 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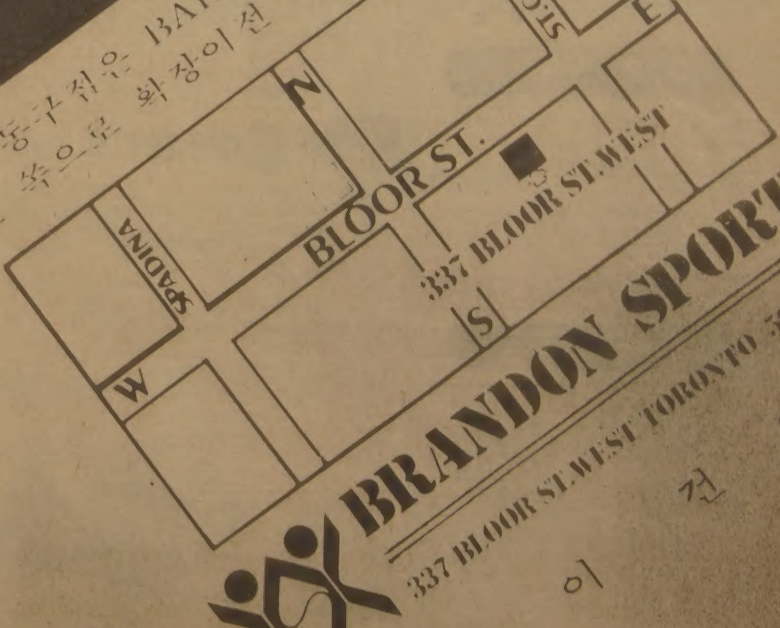
金義明 20일정식계약키로
사상최고 6千3百萬엔에


◇金義明

재일동포 金義明(18, 報德學園)은 日本프로야구팀 긴데쓰(近鐵)와 오는20일 정식계약한다.
계약금은 고교출신 신인으로는 사상최고액인 6천3백만엔(韓貨1억8천9백만원)이며 연봉은 3백60만엔(1천80만원)으로 추정된다.

한인사회 유일의
종합 운동구점
확장 이전 기념
30% UP TO 30% SALE

그동안 기위주시던 VARSITY 운동구점은 BARNDON SPORTS로 개명과 동시에
BLOOR에있는 연합교회 건너편 쪽으로 확장이전 하였읍니다.



BRANDON SPORTS

337 BLOOR ST. WEST TORONTO 398-3732

이 건 영